

임산부 배려석, 알고있나요?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제332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0일>

코스피	2039.36	(+9.09)
코스닥	691.21	(+6.92)
금리(국고채 3년)	1.64	(+0.02)
환율(원·달러)	1130.50	(+7.00)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법조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고시생 모임은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왼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시생 "서민의 희망" vs 로스쿨 "국민과 약속"

'사시존폐' 논란, 법정 선다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도 갈등에 불을 붙였다. 사시 존치에 힘을 보태는 일부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고배를 마실 경우 변협은 사시 존치를 위한 작업에 다시 돌입해야 한다. 2017년 사시가 전면 폐지되는 만큼 1년 안에 사시 존치 입법을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변협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법사위 '사시 존치' 움직임에
변협-한법협 대결양상 치달아
정치권 로비설 불똥 가능성도

없다. 양측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 이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변협의 '사법시험 존치 태스크포스(TF)' 유출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TF팀이 만든 문건에는 사시존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와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야당 의원들을 친노·비노로 계파를 나눠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법을 구사하자는 문장도 있다. 사시 폐지 법안이 노무현 정권 당시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득이 쉬운 비노를 공략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언론을 통해 문건이 공개되자 한법협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 이 문건의 유출자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지목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이 정치권 압박을 위해 조직적으로 각종 단체를 활용하고 이를 위한 경비를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했다는 의문이 든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 7일과 13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대한변협의 정치개입 의혹과 실정법 위반 의혹, 사시존치 TF 해체 등을 변협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협 측은 "유출 문건에 담당 직원의 자필 메모가 적혀 있는데 담당 직원이 유출 사실도 모르고 문건도 그대로 갖고 있었다"며 외부인의 악의적 소행을 염두에 두고 경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법협은 법조 본연의 의무에 집중하자는 전략이다. 이들은 변협을 향해 "법조 분열을 중지하라"면서 ▲외부 자본의 노동사건 대리권 요구 ▲미국 변호사 등 해외 변호사의 기업 자문시장 침투 ▲법률시장 개방을 통한 변호사 시장 불안정 등 법조 7대 위기 사안을 강조, 대내외 이미지 제고에 나섰다.

법사위가 이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한 것도 법조계 분열을 가속화시킬 거란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학용, 오신환 등 5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 존치 시한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식으로 상정됐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전체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반대 입장인 의원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해 법조계와 사시 준비생 등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결론 난 사시 관련 법안을 무리하게 쟁점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법조계가 분열되고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는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치인들은 표심 때문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이 같은 정치공방은 서로간의 상처만 남길 것 같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카카오가 새롭게 선보인 고급택시 브랜드 '카카오택시 블랙'.

'품격' 더한 카카오택시

'블랙' 출시… 벤츠 등 고급차 서비스

카카오가 고급택시 브랜드인 '카카오택시 블랙'을 출시하고 서비스 품질과 사용 편의성 확대에 나선다.

카카오는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급택시 호출을 위한 '카카오택시 블랙' 서비스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카카오택시 블랙'의 기본 요금은 8000원이다. 단 '카카오택시 블랙'은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카카오 페이로만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

'카카오택시 블랙'의 요금은 일반택시의 2.5배, 모범택시 1.5배 수준이다. 요금은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미터기(거리·시간 상호병산제)를 통해 책정된다. 강남에서 분당까지 일반택시 요금이 1만3000원, 모범택시가 2만1000원이라면 카카오택시 블랙은 3만2000원 가량 든다.

카카오택시 앱에 결제할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두면 하차시점에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 앱을 통해 이동 거리와 요금 정보를 알려준다.

택시 호출은 기존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그대로 이용한다. 카카오택시 앱을 실행시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후 택시 종류를 '블랙'으로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택시 블랙 서비스는 초반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향후 지역 특성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운영 가능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우선 벤츠 E클래스 등 3000cc급 고급차량 100대를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전문 교육을 수료한 기사는 현재 200여명이다. /양성운 기자 ysw@

Turf war over tax adjustment

세무조정 밥그릇 싸움



Controversy rages over revised tax bill which allows the people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clud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lawyer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for the income tax returns. It has been considered as a turf war among professional group. However, the Supreme Court raised an issue about the statement of external adjustment which could only be issued by the external tax professionals.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t is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claims that anyone with specialized knowledge should be allowed to have freedom of contract.

According to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related industry, the government added a content to the revised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in August that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who are licensed as tax accountant should be allowed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to carry forward the revision of law because it is an illegitimacy that the Supreme Court only allows licensed tax accountant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is against Certified Tax Account Act.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누구에게나 계약의 자유 등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사회

▲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이 20일 오후 3시30분(북한 시간 3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60여년 만에 가족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법조계의 갈등이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방산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국정 전환 작업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 정의화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돼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쩍쩍 갈라진 경천호 바닥 극심한 가을 가뭄이 이어진 20일 오후 경북 문경시 동로면 경천호가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최근 아파트·상가 분양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테라스하우스는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지은 집으로, 아파트의 편리함과 테라스를 앞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글로벌 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들은 2025년 은행 소비자금융 매출의 40%, 수익의 60%를 가져갈 전망이다.

▲ 금융당국이 22년 만에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보험산업**의 무한경쟁 체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를 많이 확보한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며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 지난 19일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 주총을 취소하고 윤경은 현 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현대증권 매각 무산이 KDB대우증권, LIG투자증권 등 증권사 구조조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를 시작으로 대형 수출주의 호실적 전망이 이어지자 **'니프티 피프티**(nifty-fifty)'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니프티 피프티'는 기관투자가가 대형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증시를 이끈 이른바 '기관화 장세'를 일컫는 말이다.

▲ 카카오가 고급택시 브랜드인 **'카카오택시 블랙'**을 출시하고 서비스 품질과 사용 편의성 확대에 나선다.

▲ 삼성SDI와 LG화학이 웨어러블 시장 공략을 위해 **플렉서블**(flexible·휘는) **배터리**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 현대자동차의 '기함(플래그십)' **에쿠스**가 얼굴과 심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BMW 7시리즈와의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면서 이통 3사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관리를 두고 **롯데그룹**과 SDJ코퍼레이션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호텔롯데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34층에서 자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DJ측은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 이일민 전무의 해임으로 맞섰다.

▲ 씀씀이 큰 유커들이 국산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에 열광하고 있다. 젠틀몬스터는 9월 한달간 롯데백화점에서 유커가 구매한 상위 브랜드 2위, 국산브랜드 1위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국제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내각의 각료 3명도 참배했다.

▲ 일본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자사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 **미중 환율전쟁**의 규모가 드러났다. 미국 재무부는 증시사태 당시 위안화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7~9월 사이에 총 2290억 달러(약 259조 원)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 제42대 캐나다 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43)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이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근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신격호 지키기 나선 롯데, 신동주 퇴거 요구

무단 진입 간과 못해…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
신 총괄회장, 신임 비서실장에 나승기 변호사 임명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자진 퇴거를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비서실과 집무실을 점거하는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날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는 "호텔 34층은 엄연히 업무를 하는 사업시설이고 많은 고객들과 투숙객들이 출입하는 곳"이라며 "회사 직원도 아니고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다수가 몰려와서 무단으로 진입하여 호텔 한 층을 점거하는 것은 호텔 사장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호텔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지난 16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진입하면서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라는 임의 문서를 회사에 제시하고 기존 비서팀 직원들의 해산을 요구했다.

또 롯데그룹과 무관한 SDJ측 인력들을 34층에 무단으로 상주하게 했다. 롯데그룹은 형제간 갈등이 부자간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SDJ측의 집무실과 비서실 점거를 묵인해왔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난 19일 신 총괄회장과 무단으로 동반외출을 감행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측은 "이 인력들은 롯데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로 관련 법규나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거나 인사발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런 사람들로 기존 직원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각종 부당행위를 하면서 회사의 업무공간인 롯데호텔 34층에 상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전날 오후 롯데물산의 업무보고 시에도 배석을 강행해 롯데물산은 △공시위반 △경영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 등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퇴장을 요구한 바 있다.



20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가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의 34층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및 비서실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송 대표가 기자간담회 후 비장한 표정으로 현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조치들이 과연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인지 의심스럽다"며 "롯데는 더 이상의 업무중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에 롯데호텔 34층 비서실에 머물고 있는 외부인들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SDJ코퍼레이션 측은 "호텔롯데 대표이사 명의의 퇴거 요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에 반하는 것이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일민 전무가 물러났다고 발표했다. 신총괄회장은 19일 오후 7시 30분께 이 전무를 직접 불러 공식적으로 해임을 통보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전날 이 전무를 비롯한 롯데그룹 측 비서진들이 모두 스스로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비서실을 떠난 후, 밤 사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 인력들이 신격호 총괄회장님을 모셨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모시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과 그 인력들까지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무는 통보를 받은 후 동일자로 집무실을 떠났다. 신 총괄회장은 "그 동안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전무가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무 해임 통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롯데그룹의 적법한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무는 아직 해임처리 되지 않았다"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 전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집무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신총괄회장이 직접 신임 비서실장으로 법무법인 두우의 나승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롯데家 경영권 분쟁에서 법무법인 양헌과 함께 신 전 부회장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주택지, 비탈진 경사면 뜨는 이유는?

아파트·상가 분양, '테라스하우스' 열풍
획일화된 평면 구조 탈피…공간 활용도 높아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도 약 100만원 저렴해

최근 테라스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상가 분양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테라스하우스는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해 계단식으로 지은 집이다. 보통 아랫집의 지붕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하고, 거실에서 발코니 문을 열면 테라스가 나오는 구조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테라스를 앞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장점이 특징이다. 테라스하우스는 저층(5층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상가 분양시장에서는 보통 2층 공간을 활용해 테라스를 조성한다. 매장 내부와 테라스 사이에 테이블 등을 두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이며 건물 외관에 개성을 입히는 방식이다.

테라스 공간은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대에 주택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는 23일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도 테라스하우스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에 들어선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대 중반에 책정될 예정이다. 영덕동 일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09만원(KB부동산시세)인 점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다. 인근 기흥역세권은 3.3㎡당 1150만원 안팎에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테라스하우스의 장점 때문에 연말 공급 물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이달 중 경남 거제시 상동4지구 A3블록 일대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거제'의 경우 일부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테라스하우스가 적용된다.

효성도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1679가구 가운데 30가구를 테라스하우스로 공급한다.

삼성물산은 11월 서울 은평구 녹번1-2구역 재개발 아파트 '래미안 북한산 베라힐즈'에 테라스하우스를 공급한다. 전체 1305가구 중 33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가운데 테라스하우스는 전용면적 전용 84㎡ 5가구, 59㎡ 4가구 등 9가구다.

한신공영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중소형 테라스 타운인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한다. 11월부터 Bc-08블록 232가구, Bc-09블록 184가구, Bc-11블록 157가구, Bc-12블록 351가구 등 924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10월 이후 분양에 나서는 상업시설 가운데 테라스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상가는 '동탄역 카림 애비뉴 2차'다.

상가는 반도건설이 11월 분양 예정인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 8.0' 아파트 단지 내 들어서며 아파트가 위치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공급되는 상업시설 가운데 최초로 테라스 상가로 구성된다. 상가 규모는 약 300실이다. 두 번째 카림애비뉴인 만큼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의 한층 강화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품차별화를 위해 준공때까지 관리해 주는 안심 임대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GS건설이 지난 여름 부천옥길지구에서 분양됐던 부천옥길자이 상업시설도 테라스 상가로 공급된다. 2층을 테라스로 꾸밀 계획이다.

이외에도 반도건설이 11월 동탄2신도시 A98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9.0' 아파트에도 테라스하우스가 공급된다.

아파트가 들어설 A98블록은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인 워터프론트콤플렉스와 가까워 상업·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반도건설은 주방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동탄신도시에서 검증된 특화평면 도입은 물론 신개념 테라스하우스까지 갖춘 프리미엄 아파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9.0'은 지하 2~지상 20층 13개동, 689가구 규모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세번째)이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發 ‘개헌’ 불씨 되살아나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새로운 정치질서 등장해야”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정의화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돼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20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질서가 등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합리적인 공천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욕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계층·세대·이념·지역·남북으로 갈라진 채 ‘분열과 갈등’의 중병을 앓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바로서야 한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돼야 한다”며 “제가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101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당선된 것은 19대 국회 남은 2년 동안 국회를 정말 제대로 바꿔보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가오는 20대 총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치의 틀을 결정짓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공천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공천 시스템은 사생결단식 적대의 정치, 승자독식과 줄 세우기 정치를 불러와 국민들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논의를 시작했고 근원적 개혁은커녕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20대 총선 룰’에 대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불가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늦었다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도를 개선하고 현재의 의원 정수 내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게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당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구성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부터 개헌까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기필코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배려 없는 日…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야스쿠니 집단참배

회담 개최 기정사실 해놓고 여야 막론 70명 보란 듯 참가 ‘외교적 결례’ 지적 잇따라

2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에서는 11월 1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들 계산대로라면 정상회담을 불과 10일 정도 남겨두고 보란 듯이 한 행동이다. 한국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추계예대제 기간 중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유신당, 차세대당 등 각 당에서 70명이 참가했다.

특히 도카시키 나오미 후생노동부 장관, 이노우에 신지 환경부 장관 등 현직 내각인사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야마타니 에리코 전 국가공안위원장, 아리무라 하루코 전 여성활약담당 장관 등 전 내각인사들도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하타 유이치로 전 참의원 간사장, 유신당은 가키자와 미토 전 간사장, 차세대당은 나카야마 교코 대표 등이 참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배 대신 ‘마사카키’(화분 형태의 공물)를 봉납했다. 공물에는 총리 직함이 붙었지만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자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참배 이후 공물 봉납만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라고 참배 자제가 본심은 아니다.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베 총리가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외교에서 장애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고) 멀리서 참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나마 외교적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같은 아베 총리 한 명만의 배려조차 얼마나 갈 지 모를 일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에) 일본군 위안부나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외교 카드로서 쓸 수 없다는 올바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역사적 이슈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신사 참배 마무리는 음복? 오쯔지 히데아사 일본 참의원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이끄는 의원단이 20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뒤 청주 한 잔씩을 받아들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여러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며 사형당한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 /연합뉴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현 한국사 집필진 47.5%가 '서울대' 출신

특정대학 쏠림·사제간 집필 독식 심각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현 고교사 집필진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등 특정 학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현황 분석'에 따르면 한국사 고교 교과서 집필진 중 서울대(사학과 8명, 사범대 역사교육과 19명, 동양사학과 1명) 출신 교수와 교사(59명 중 28명, 47.5%)의 집필 독식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출신 19명(32.2%)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필에 참여한 서울대 출신은 '지학사' 8명 중 8명(100%), '금성' 8명 중 7명(87.5%), '리베르스쿨' 5명 중 4명(80%)으로 지학사는 전원, 금성과 리베르스쿨은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는 지학사(8명 중 7명), 리베르스쿨(5명중 4명), 금성(8명중 5명)의 비중을 보였다.

그밖에 집필진의 출신 대학은 동국대(10.2%), 연세대(8.5%), 고려대(6.8%) 순으로 나타났다. 천재교육의 경우 8명 중 4명이 연세대 사학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사제지간 교과서 집필 독식 현상도 뚜렷했다.

사제지간 집필현상은 2개 출판사(미래엔, 교학사)에서 나타났다. '미래엔'의 경우 현직 동국대 교수(고려대 졸업, 한철호)와 동대학 졸업생이 함께 집필에 참여(8명 중 5명, 62.5%) 하고 있었다. 또한 고려대 출신 교수와 교사가 절반(8명 중 4명, 50%)에 해당, 특정 교수(한철호)를 중심으로 연결된 학맥에 따라 집필진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학사'는 현직 공주대 교수(서울대 졸업)와 동대학 졸업생 일부가 집필에 참여(교수1, 교사2)하고 있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역사교과서의 불편한 진실… 3·1운동이 간디에 영향을?

진영논리에 빠져 진정한 왜곡은 무관심

| 인터뷰 | 이 광 수 부산외국어대 인도학부 교수

한쪽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좌편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를 위한 것이라며 결사반대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에는 이들 중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왜곡이 있다. 한국을 미화하려다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 소설을 쓰는 일이다. 이런 식의 왜곡은 국수주의나 쇼비니즘이 탄생하는 토양이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진영을 떠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게 문제다.

북미·유럽이나 일본·중국이 상대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상대국의 쟁쟁한 사학계가 두고 볼 리 없기 때문이다. 인도·동남아·남미·아프리카 등은 다르다. 한국 미화의 희생양이 되기 쉽다. 이럴 경우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국 학자들의 소양과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 이게 안되면 국민은 바보가 된다.

메트로신문이 만난 인도사 교수의 경험담에는 국민을 수십 년 동안 바보로 만든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가 다시 국정교과서를 만들기로 했다니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다. 같은 오류는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부산외국어대 이광수 교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 이야기를 하면서 3·1운동을 언급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역시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가 나온다. 이 교수는 "몇 년 전 일이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한 마디 했다. 한국의 1919년 3·1운동이 인도 민족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역사 기술 부분 때문이었다. 아무리 민족주의라고 하지만 전혀 없던 사실을 만들어서 왜곡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고, 내 항의는 문서로 전달되어 지금은 교과서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국정 교과서 때 이런 역사 왜곡은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인도의 민족운동은 3·1운동이 있기 훨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족운동의 최고 지도자인 간디는 1900년 이미 남아공화국에서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성공시켰다. 이는 몇 년 후 인도 민족운동의 전범이 된다. 간디는 인도로 돌아온 후 1915년부터 여러 농민·노동자 운동을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통해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를 기반으로 간디는 민족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 간디 주도 하에 민족 자치 운동은 1917년부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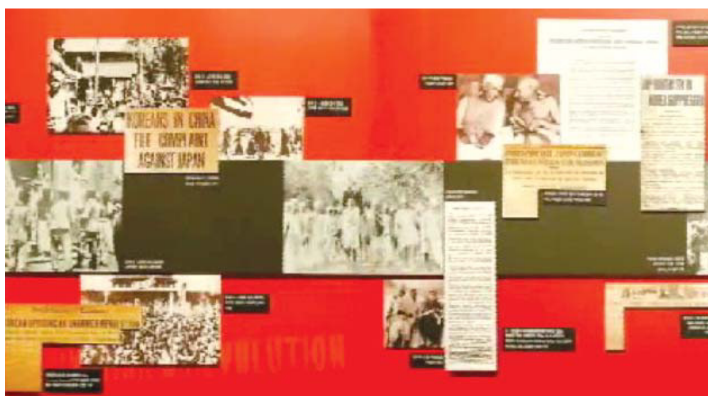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인도에서는 조선에 관한 일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04년 동양의 작은 나라 일본이 서양의 큰 나라 러시아를 물리쳤다는,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고 그 와중에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의 관심도 끌지 못했다. 서구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영국의 혹독한 식민통치에 억압받던 인도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들에게는 아시아국가가 서양 열강을 격파했다는 게 중요할 뿐이다. 3·1운동에 관해서는 당시 뉴스 한 줄, 논평 한 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역사 기술이 나왔을까. 이 교수는 "짐작컨대 국정교과서를 집필한 1970~80년대 한국에 상당히 널리 알려진 인도 독립운동가이자 독립국 인도 공화국의 초대 수상인 네루가 1932년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에게 쓴 편지를 묶어 펴낸 책 '세계사편력'에 나오는 몇 문장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중학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술한 누군가가 억지로 끌어다 붙여 인도의 민족운동이 한국의 3·1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어난 것이라고 기술하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는 권위를 갖는다.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이 같은 왜곡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됐다. 이 교수의 항의로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수정됐지만 과거 교과서로 배운 세대들은 여전히 왜곡된 내용을 상식처럼 안다. 현재도 온라인상에는 왜곡된 내용이 사실처럼 통한다. 국가가 세운 독립기념관조차 왜곡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



독립기념관 제4전시관에서는 한국의 3·1운동이 인도를 비롯한 전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다는 잘못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홍보자료

◆ 이광수 교수는…



부산외국어대 인도학부 교수. 인도사 전공. 인도사를 제대로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둔다. 국내에 잘못 알려지거나 왜곡된 인도사를 바로 잡는 중이다. 인도에 관해 가장 많은 부분인 소와 갠지스 강에 대해 '암소와 갠지스'를 집필했고, 신화를 벗겨낸 역사인으로서의 붓다를 찾아내 '슬픈 붓다'를 집필했다. 현재는 '허왕후가 인도에서 왔다'라는 만들어진 신화를 바로잡기 위해 '허왕후, 그 만들어진 신화'(가제)를 집필 중이다. 이 인터뷰의 내용 또한 이러한 연구의 일환이다.

경찰 창설 70주년… 총수 지위로 본 역사

일개 국장급으로 출발… 독립관청 수장

1945년
경무국장에 조병옥 임명

1946년
장관급 경무부 승격

1974년
유신시절 차관급 격상

1991년
독립청 '경찰청' 탄생

한국 경찰이 21일 창설 70주년을 맞는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경찰은 서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오는 한편으론 독재 정권의 방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경찰의 긴 역사만큼 경찰 총수의 지위도 여러차례 변화해왔다.

미 군정기 때 장관급이었던 경찰 총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부처의 일개 국장급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조직과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경찰의 중립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이 독립 관청의 수장이 됐다.

◆ 미군정 시절 국장급에서 시작

우리나라 경찰은 미 군정청의 경무국에서 비롯했다. 1945년 9월 9일 서울로 입성한 미군은 그달 12일 아치볼드 아놀드 소장을 미군정 장관으로 임명한다.

아놀드 장관은 이틀 뒤인 14일 조선총독부 내무부 산하의 일본인 경무국장을 파면하고서 '경찰권은 군정에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10월 21일 새 경무국장으로 조병옥 박사를 임명했다. 이날이 바로 우리 경찰이 창설된 날이다. 정부는 이날을 '경찰의 날'로 지정했다.

이듬해에는 경찰 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승격된다. 미 군정이 1946년 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격상해 법무부, 재무부, 운수부, 농림부 등과 함께 별도 부처가 됐다.

◆ 정부 수립 후 내무부 국장으로 전락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경찰 수장의 위상은 크게 위축된다. 부처였던 경무부가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격하된 것이다.

광복 후 미 군정이 새 경찰을 모집할 때 인원 부족으로 부적격자가 많이 들어왔다.

이들은 '잿밥'에 더 관심을 둬 경찰관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기 일쑤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정부조직이 편성될 때 바로 이 같은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됐다. 경찰 조직이 치안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국, 통계국, 토목국 등과 함께 내무부 산하로 들어가면서 경찰 관련 예산과 인력, 기구도 축소됐다.

◆ 유신 시절 차관급으로 격상

유신 시절인 1974년 말 다시 경찰 수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그 해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경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하고 치안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올렸다.

경찰의 인원과 기능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부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조직의 위상을 조정하려는 조처이기도 했다. 1991년 7월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변화를 겪는다.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 소속이지만 독립된 외청인 '경찰청'으로 거듭났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이산상봉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인 20일 오후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북측 신영기 할아버지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8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은 북측 방문단 96가족이 남측 가족과 상봉하는 1차(20~22일)와 남측 방문단 90가족이 북측 가족과 만나는 2차(24~26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합뉴스

교육부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의결"

국편에 예산 내려보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내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 예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우회적 방법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이 예비비로 의결했다"며 "예비비 일부를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려 보내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20일 밝혔다.

44억원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까지 포함한다. 교육부는 현재 국편에 보낸 예비비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필요할 때 예비비로 충당하고 이듬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보고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 교과서 예산과 관련, "새누리당이 예비비로 하자고 할 때 거부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소녀시대 명칭, 다른 사업자 못 쓴다"

대법 "소비자 오인염려 있어"

'소녀시대'라는 명칭은 걸그룹 소녀시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했다.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열흘 정도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

이 사실을 안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김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M은 소녀시대를 음반이나 음원에 사용하지만 김씨는 이를 의류나 완구, 식음료등에 사용하는 만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녀시대가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비자들이 김씨가 제조하는 상품과 소녀시대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녀시대는 2007년 8월 그룹활동을 시작한 뒤 곧바로 음악방송 1위에 올랐고, 다양한 상품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얻었다며 해당 명칭이 코트 등의 상품에 사용되면 소녀시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선준 기자

노화와 질병의 원인 수소수가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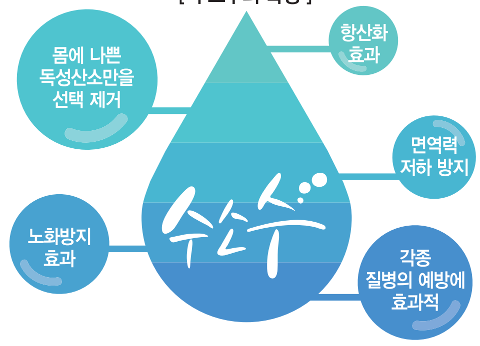
수소가 선택적으로 독성산소의 상해로부터 세포를 지킨다 – Nature Medicine 저널 발표



수소수가 답이다
지음 임동수·김서곤
출판사 상상나무
200쪽 | 값 13,500원

Contents / 수소水가 답이다!





질병의 90% 이상은 독성산소가 원인이다

활성산소는 면역기능에 사용되는 좋은 활성산소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활 성산소(독성산소)로 나뉜다. 독성산소의 발생은 고강도의 운동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과식, 음주, 흡연 및 환경오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결국 세포를 병들게 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회 이상 호흡하며, 양으로 따지면 1만 리터 이상의 공기가 호흡을 통해 드나든다. 호흡으로 흡수되는 산소는 1,500리터에 달하며, 이중 2~3%(약 30리터)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남아 활성산소(독성산소)가 된다.

독성산소는 세포안에 DNA를 공격하고 그로 인해 DNA 구조가 깨져 돌연변이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독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이며, 뇌출혈, 치매는 물론 루게릭,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에이즈, 당뇨병, 아토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모든 질병의 90%가 바로 독성산소가 원인이다(미국 존스홉킨스대 의학보고서). 결국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가 매일 몸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전염병의 70%를 예방해 준다. 독성산소는 인체를 노화시키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몸 속 독성산소를 씻어주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요, 지름길이다.

기적의 항산화제, 수소

인체에는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인체 내 천연효소로서 항산화효소(SOD)가 있다. SOD는 20대까지는 왕성하게 생성되지만, 35~40세가 되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40대 이후에는 항산화 효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수소는 독성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 인체 각 기관 및 뇌세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항산화제이다. 수소는 비타민 C보다 무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

기적의 비밀은 수소수

최근 학계에서는 미네랄워터, 심층수,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를 주목한다. 프랑스 루르드의 샘물, 독일 노르데나우의 물, 인도 나다나의 우물 등 세계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물을 분석한 결과, 기적의 원인으로 생각할만한 특별한 성분들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던 2007년 5월, 미국의 과학지 '네이처 메디슨'은 일본의과대학 대학원 오타 시게오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수소가 활성산소(독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 논문은 수소를 녹인 물이 강한 산화력을 가진 독성산소인 '하이드록실 래디칼(Hydroxyl Radical)'을 제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전 세계에서 치유의 물로 일컬어지는 물들이 수소수 연구실로 모이게 되었다. 연구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물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물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소'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마침내 밝혀냈다. 기적의 물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수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성산소만을 제거하는 수소수!

물은 모든 생명의 모체이며 근원이다. 물을 마시면 혈액과 림프액이 되어 온 몸을 순환하는데, 30초 후면 혈액에 흡수되고, 1분 후 뇌, 생식기, 태아에 전달된다. 10분 후엔 피부조직, 20분 후엔 간, 심장, 신장에 도달하며, 동시에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물은 모세혈관을 통해 인체 어디든 가며, 따라서 수소수는 몸 속 독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다. **전국서점 판매중** **도서출판 상상나무**

문의 031.971.4800/www.smbooks.com

‘독일車 저격’ 신형 에쿠스 출격 준비

현대차, 12월 출시 예정 벤츠·BMW와 정면승부

외형 ‘제네시스’와 유사 최고 수준 안락함 구현



현대차 에쿠스. /현대차

현대자동차의 ‘기함(플래그십)’ 에쿠스가 얼굴과 심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BMW 7시리즈와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세단인 신형 에쿠스가 오는 12월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현대차는 신형 에쿠스 개발을 완료하고 남양주 연구소와 ‘녹색 지옥’으로 불리는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 등에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의 외형은 제네시스와 유사한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승용차 라인업 정점에 있는 에쿠스는 2009년 3월 출시된 이후 2011년까지 매년 1만대 이상 팔렸다. 2012년 9308대로 다소 판매량이 떨어졌지만 부분 변경된 에쿠스가 출시된 뒤 2013년에는 예년 수준인 1만2725대로 올라섰다.

하지만 에쿠스의 판매 실적은 지난해 8487대로 다시 내려앉았고 올해도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차에서는 에쿠스의 ‘조기 등판’을 검토해왔다.

신형 에쿠스는 제네시스와 비슷한 헥사고날(육각형) 형태의 전면 그릴이 적용됐다.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 2.0’을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제네시스와 흡사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신형 에쿠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안락감을 구현하기 위해 정성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깨받침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과 뒷좌석에 뉴 S클래스와 7시리즈를 넘어서는 편안함을 추구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술 등의 편의 사항도 대거 적용됐다.

또 신형 에쿠스에는 자율주행 초기단계 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HDA)이 최초로 탑재된다. HDA는 운전자가 차선이나 경로를 변경하지 않는 한 운전대와 가속페달을 조작하지 않고도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하면서 차량 스스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신형 에쿠스의 경우 5.0ℓ 타우 V8 엔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3.8ℓ 엔진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트레인은 V6 3.8ℓ 가솔린 엔진과 V8 5.0ℓ 가솔린엔진에 9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에쿠스 출시가 연말로 예정돼 준비가 한창”이라고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 8월 미국 시장에서 에쿠스(185대)와 기아차 K9(386대)을 총 571대 팔아 244대를 판매한 벤츠 S클래스에 이어 대형차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쏘나타, 사우디 ‘올해의 車’ 선정

현대자동차 중동시장 판매 확대 기대



현대차 쏘나타 2.0 터보.

현대자동차는 쏘나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동차 전문지 ‘사우디 오토’가 선정한 ‘올해의 차’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수상으로 중동 최대 시장인 사우디에서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쏘나타는 지난해 중동에서 전년보다 6% 증가한 2만8000여대가 팔리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쏘나타는 최근 미국 ‘그린카저널’이 선정한 ‘2016 올해의 그린카’상 최종 후보 5종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다른 후보는 아우디 A3 스포츠백 e-트론, 쉐보레 볼트, 혼다 시빅, 도요타 프리우스 등이다.

/조한진 기자 hjc@

한국지엠 사장 겸 CEO에 제임스 김 선임

세르지오 호샤는 회장 승진



한국지엠주식회사(한국지엠)는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사진)를 내년 1월 1일부로 신임 한국지엠 사장 겸 CEO에 선임하고, 세르지오 호샤 사장 겸 CEO를 한국지엠 회장에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테판 자코비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그 동안 다양한 업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제임스 김 사장 겸 CEO와, 3년 이상 한국지엠을 잘 이끌어온 자동차 업계 베테랑 세르지오 호샤 회장이 새로운 직위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 앞으로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샤 신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부임한 이후 한국지엠의 발전과 내수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리더십과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GM 우즈베키스탄 사업도 지원한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한국지엠 사장 겸 COO로 부임한 이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빠르고 견실하게 높여왔다. 그는 2009년부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국사업을 총괄하는 CEO로 재직했고, 오버추어의 아시아지역 부사장과 오버추어코리아CEO를 역임했으며, 이어 야후코리아 CEO를 역임했다.

/조한진 기자

동부대우전자, 제품 현지화로 중동공략 강화

신제품 발표회 개최 등 가전시장 겨냥 마케팅



동부대우전자 사우디아라비아 신제품 발표회장에서 세탁기 제품을 구경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들. /동부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가 글로벌 플랫폼 신제품을 앞세워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다.

동부대우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와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중동 가전시장을 겨냥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제다, 담만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TV 등 주요 신제품 39종을 공개했다. 이달 초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도 글로벌 플랫폼(GPF) 냉장고와 세탁기를 중심으로 에어컨과 청소기 등 20여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 4월 출시 이후 꾸준히 인기를 끄는 글로벌 플랫폼 관련 제품들이 주목을 받았다. 현지 바이어들은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 기능에 대해 호평을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글로벌 플랫폼 프로젝트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역별 파생모델을 내놓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소비자 환경에 맞춰 제품 교체주기와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중동 소비자들의 생활 양식에 맞춘 신제품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동법인 관계자는 “중동 시장은 인구 증가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가전제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제품 출시와 함께 현지 거래선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해 중동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시장은 동부대우전자 해외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지난 1994년 중동 시장에 진출해 두바이 법인과 이란, 암만, 사우디아라비아 지사를 두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삼성 ‘제1회 사회복지사 비타민 캠프’ 진행

삼성그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제1회 사회복지사 비타민 캠프’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기 용인시 삼성물산 서비스아카데미에서 30명이 참여하는 1회 캠프를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은 기존에 에버랜드 리조트 임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비타민 캠프를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의 체감 스트레스는 매우 심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없다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혀 즐겁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차세대 웨어러블 배터리, 누가 승기 잡나

삼성SDI·LG화학, 신제품 공개 본격 공략
인체곡선 최적화 밴드형 배터리 등 선보여




'2015 인터배터리'에서 선보인 삼성SDI의 스트라이프 배터리·밴드 배터리(왼쪽)와 LG화학의 손목밴드형 와이어 배터리. /삼성SDI·LG화학

삼성SDI와 LG화학이 웨어러블 시장 공략을 위해 플렉서블(flexible·휘는) 배터리를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워치 시장은 2020년 1억대 가량이 출하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에 두 업체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5 인터배터리'에 참가해 배터리 신제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웨어러블 시장 공략을 표명했다.

삼성SDI는 이날 스트라이프 배터리와 밴드 배터리를 선보였다.

삼성SDI가 이번에 최초로 공개한 스트라이프 배터리는 섬유와 같이 자유자재로 휠 수 있는 유연성과 에너지밀도를 구현한 차세대 배터리다. 스트라이프 배터리는 목걸이, 헤어밴드, 티셔츠 장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내·외장재 설계에 첨단 소재기술을 적용해 두께 0.3㎜의 초슬림 디자인을 완성했고 실링 폭 최소화 기술로 기존 유사 배터리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했다.

삼성SDI는 밴드 배터리도 선보였다. 밴드 배터리는 스마트 워치를 타깃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스마트 워치 줄에 밴드 배터리를 적용하면 용량을 크게는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삼성SDI의 밴드 배터리는 사람 손목 둘레 수준의 곡률 범위 내에서 약 5만번 이상의 굽힘 테스트 후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해 충분한 상품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삼성SDI는 5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소형배터리 제품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와 ESS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전 분야를 공개했다.

소형배터리 부문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파워툴(전동공구), 전기자전거, 골프카트 등의 뉴애플리케이션용 배터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에서는 BMW의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 i8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배터리를 비롯해 다양한 셀, 모듈, 팩 제품을 선보였다. ESS 부문에서는 대형 빌딩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UPS(무정전 전원 장치)와 가정용 ESS 제품 등을 전시했다.

삼성SDI 배터리연구소장 김헌수 전무는 "스트라이프 배터리와 밴드 배터리는 웨어러블 배터리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도 이날 손목 밴드형 와이어 배터리를 최초로 공개했다. 이 배터리는 LG화학이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선 형태의 와이어(Wire) 배터리를 응용해 만든 제품이다. 기존 플렉서블 배터리가 사람 손목 곡률반경인 30R 정도에서 멈추는 한계가 있는 반면 이 제품은 위·아래로 완벽하게 접을 수 있는 15R 수준의 구현이 가능하다.

특히 밴드형 와이어 배터리만으로도 기존 스마트워치 용량을 구현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시계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배터리 기술을 대거 공개했다. LG화학은 코어테크, 모바일, 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총 4개의 섹션별로 미래형 배터리 기술인 '프리 폼(Free Form)' 배터리와 ESS, 전기차 등 중대형 배터리 혁신 제품을 함께 내놨다.

LG화학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적인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협력사 역량 위해 기술·인력 지원 확대"

SK주식회사 C&C
'동반성장 데이' 개최

SK주식회사 C&C는 20일 충청북도 충주시 인등산 행복마을에서 '2015년 동반성장 데이'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정호 SK주식회사 C&C 사장을 비롯, 이기열 전략사업부문장, 이준영CV혁신사업부문장 등 경영층과 54개 협력사 대표 총 70여명이 함께 인등산에서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동반성장 데이는 SK 선대 회장의 인재경영 및 행복철학에 대한 사상이 깃든 인등산에서 협력사와 갑을(甲乙)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SK철학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정서적 연대 의미도 담겨 있다.

인등산은 故 최종현 SK 선대 회장이 1972년 '산림의 자원화를 통한 인재육성'을 강조하며 절대 개발이 안될 지방의 산간 오지와 황무지 개척을 지시하여 조성됐고, 그가 직접 가꾼 조림지는 '인재의 숲'으로 명명, SK 고유의 인재육성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다.

SK주식회사 C&C는 이날 향후 3개년의 사업 방향과 합병 후 회사의 사업 방향성에 대해 소개하며 협력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특히 향후 글로벌 ICT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마트 ICT기업으로 변모함에 있어 협력사들의 전문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협력사들의 전문 역량 함양을 위해 SK주식회사 C&C의 기술 및 인력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SK주식회사 C&C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끌어 내는 협력사 대표분들을 늘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SK주식회사 C&C와 협력해 더욱 의미 있고 괄목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며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아시아나항공 '이미지가치 취우수' 영예

아시아나항공 2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의경영대상'에서 '이미지가치 최우수기업' 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나항공 조규영 여객본부 부사장(가운데)이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우조선 기술적용 'LNG 추진 컨선' 투입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기술이 적용된 세계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해상 시운전을 성공리에 마치고 실제 노선에 투입된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의 자회사인 나스코조선소는 최근 3100 TEU급 컨테이너선인 이슬라벨라호의 해상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사인 토트(TOTE)에 인도했다. 이 선박은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가 보유한 천연가스 추진 기술을 대거 적용한 세계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자체 특허 기술인 고압 LNG연료공급장치(HiVAR)의 기본설계 및 공급을 총괄했다. 자회사인 신한기계는 설비 제작을 담당했고, 설계 자회사인 디섹은 선박 전체에 대한 설계 및 자재 패키지 공급을 맡았다.

천연가스 추진 선박은 기존 선박보다 친환경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조선업의 미래'로 꼽힌다. 일반 중유(HFO) 선박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 황산화물은 95% 이상 감소시킬 수 있고, 연료비도 35% 가량 절감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허 및 자체 기술을 토대로 30여 척이 넘는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등 천연가스 추진 선박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한진 기자 hjc@

제주항공
항공 꿈나무 지원 사업
여행 등 학습기회 제공

제주항공이 미래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항공은 대안양육사업을 벌이는 민간사회복지기구인 서울SOS어린이마을, 라마다 합덕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대회의실에서 서울SOS어린이마을 어린이들의 교육여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서울SOS어린이마을 허상환단장, 라마다 함덕 서민지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은 정기적으로 서울SOS어린이마을 어린이들의 제주로 떠나는 교육여행 지원을 통해 항공여행을 비롯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8월에도 제주항공은 제주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등 사회공헌사업을 공동추진 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은 지난 13일과 15일 제주 농어촌지역 3개 학교 어린이와 교사 50여명의 수도권 수학여행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미래 항공 꿈나무들의 교육여행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조한진 기자

'홈 IoT'로 뻗어가는 이통3사의 3色 전략

<사물인터넷>

SKT
제조사 제휴맺고 플랫폼 제공
가전제품 협업·연동서비스 개발

KT
미디어 기반 B2B 사업 병행
친환경 생활가전까지 확대

LGU+
도어락 등 센서 중심 기기
'小物인터넷' 형태 구현



SK텔레콤 모델들이 홈 IoT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지난 7월부터 각기 다른 전략으로 홈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SK텔레콤은 다양한 가전기기와 사물인터넷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들과 제휴를 통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제습기, 가구, 보일러 등과 같이 홈 사물인터넷 대표 상품 제조업체들과 협업해 가전제품에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제품 생산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홈 사물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플랫폼 허브로 활용되는 와이파이 무선공유기가 타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홈 사물인터넷 이용시 스마트폰 앱에 대해 월 1000원을 과금하는 형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물인터넷은 소비자에게 편의 증대를, 이통사에는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종업종과의 활발한 업무협약을 통해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홈캠과 같은 미디어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B2B(기업간거래) 기반의 사업제휴를 병행하고 있다.

KT의 홈캠은 스마트폰 앱으로 홈캠 단말이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급상황 시 앱의 '긴급출동' 버튼을 누르면 KT텔레캅이 출동하는 서비스로 현재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KT는 B2B 기반의 사업제휴도 확대 중이다. KT는 웅진코웨이와 손잡고 '스마트 에어케어' 사업을 연내 상용화할 예정이다. 웅진코웨이의 정수기와 비데 등 친환경 생활가전으로 홈 IoT 서비스의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내 20여곳의 가전업체와 협력해 IoT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소물(小物)인터넷' 형태의 홈 사물인터넷을 구현하고 있다. 소물인터넷이란 비교적 비싸지 않은 센서 중심의 기기로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LG유플러스는 스위치 플러그, 에너지미터, 오픈센서, 도어락, 온도조절기 등 비교적 작은 금액의 기기와 사물인터넷 허브를 직접 설치해주는 등 홈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 이용 시 과금체계도 일반 유무선 통신 요금과 마찬가지로 요금제에 대한 약정과 약정할 경우 요금을 할인해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홈 사물인터넷 가입자 수는 2만5000명 수준으로 최근 관심을 끌면서 이용자의 가입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유플러스는 국내 최저 가격인 월정액 7000원으로 국내 최다인 10만권의 만화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정액형 서비스인 '만화1번지'를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월 7000원에 만화 10만권 감상"

LG유플러스
'만화1번지' 월정액 출시

LG유플러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만화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와 제휴를 통해 국내 최저 가격인 월정액 7000원으로 국내 최다인 10만권의 만화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정액형 서비스인 '만화1번지'를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만화1번지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구글 PLAY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 받으면 되고, 아이폰 사용자는 10월 중에 앱스토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인기 만화를 기기 제한 없이 감상할 수 있는 만화1번지는 모바일, 태블릿, PC 등 모든 기기에 N스크린 연동을 지원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보던 만화를 이어볼 수 있다.

만화1번지는 국내외 인기만화들을 업계 최다인 6500여개 타이틀, 약 10만권을 보유하고 있다. 순정, 코믹, 학원, 액션, 무협, 성인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무협, 성인물 등 남성 독자 위주의 장르가 80~90%에 편중돼 있는 타사의 기존 만화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의 독특한 컬러만화인 '그래픽노블'까지 제공한다. 그래픽노블은 '쥬라기공원' 'CSI' '트랜스포머' '스타트랙' 등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 흥행한 작품들의 원작들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사에서는 정액 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고 권별 유료결제로만 볼 수 있었던 '짱' '붉은 매' '전생연분' '유레카' '남벌' 등 인기 작품도 만화1번지에서는 월정액으로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공시지원금 올리고 출고가 내리고…

'넥서스5X' 출시… 이통사 판매전략 각양각색

구글의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마시멜로'를 탑재한 스마트폰 '넥서스5X' 출시에 맞춰 이동통신사들이 저마다 색다른 판매 전략을 내놔 눈길을 끈다. SK텔레콤은 업계 최고 공시지원금을 책정했고 KT는 출시 첫날부터 출고가를 단독 인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넥서스5X 16GB 모델에 최고 3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한다.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선택하면 최저 12만87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넥서스 5X

월 6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22만4000원, 월 3만원대 요금제 선택 시 11만6000원의 공시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이에 따른 최저 판매가는 25만600~37만4800원 수준이다.

KT는 공시지원금을 덜 지급하는 대신 출고가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다. 넥서스5X 16GB 모델의 출고가는 SK텔레콤에서 50만8200원이지만, KT에서는 47만5200원이다.

KT는 월 10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을 24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 판매가는 19만6900원이다. 월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23만1400원에, 월 3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34만6400원에 각각 구입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넥서스5X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공개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

KT '올레 기가 인터넷' 가입자 70만명 돌파

출시 1년만에 압도적 1위

KT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인 '올레 기가 인터넷'이 20일로 출시 1주년을 맞았다. 가입자 70만명을 돌파해 압도적인 업계 1위를 차지했다.

KT는 8년 동안 100Mbps에 머물던 인터넷 속도를 10배 빠른 1Gbps로 끌어올린 올레 기가 인터넷을 작년 10월 출시했다.

첫 3개월 동안 월 평균 가입자 수는 4만명에 그쳤지만 '기가 와이파이 홈' 등 연계 서비스가 나오고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월 평균 6만명으로 가입자 모집에 탄력이 붙었다.

KT는 기가 인터넷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 광케이블(FTTH-R) 시설을 절반 이상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커버리지 투자를 늘려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기가 와이파이 홈을 비롯해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기가 UHD tv',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인 '기가 홈캠' 등 기가급 인터넷 속도가 필요한 연관 서비스도 동반 성장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KT가 최근 가입자 2천3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후 겪은 변화'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인터넷 끊김이나 기다림이 사라졌다'(45.8%)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18.2%) 등의 응답이 많았다.


KT 모델들이 '올레 기가 인터넷' 서비스 출시 1주년을 알리고 있다. /KT

'기가 인터넷을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는 55.9%로 나타났다. /정문경 기자

"핀테크업체, 10년 후 은행 수익 60% 잠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매킨지 보고서 분석

진입 쉽고 기술 우위 활용 소비자 금융 강세 예상

은행, 개혁 등 노력 필요

앞으로 10년 후 은행들이 소비자 금융 수익의 60% 가량을 핀테크 업체에 빼앗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담보대출,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출)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업고객 대상 업무에서 겨우 체면 치레할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금융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 개혁 의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질타할 정도로 금융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보신주의 영업 관행 타파, 당국의 규제 완화와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고비용 인력체제와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재은 연구원은 20일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매킨지의 '글로벌 뱅킹 연차보고서(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를 근거로 이 같이 진단했다.

매킨지는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90개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2025년 핀테크(FinTech·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진입장벽이 낮고 기술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리테일(소매금융) 분야에서 은행의 수익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인 신용을 바탕으로 신용대출, 할부금융 등을 제공하는 소비자 금융에서의 강세를 예상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2025년 은행 소비자금융 매출의 40%, 수익의 60%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혁신속도가 빠른 지급결제나 중소기업에서 소호(SOHO)까지를 아우르는 자영업자(SME) 대출,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핀테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 결제 분야에서는 은행 매출의 30%, 수익의 35%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영업자 대출에서도 매출의 25%, 수익의 35%를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관리(WM) 분야는 은행 매출의 15%, 수익의 30%를 잠식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매출의 10%(수익 20%)를 은행으로부터 빼앗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자산담보대출, 신디케이트론 등 비교적 구조가 복잡하거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업무는 은행의 강세를 예상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산업의 평판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은행과 고객의 단단했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고객들이 핀테크 기업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들이 나오고 기술발달로 인한 새로운 고객 형태가 나타나는 점도 핀테크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 살아 남으려면 고객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혁신을 위한 과제로 ▲은행 조직문화 변경 ▲고객에게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브랜드 구축 ▲개인화된 고객경험 제공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데이터 거버넌스와 활용에 투자하는 등 기술혁신을 통해 디지털 금융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재은 연구원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보편화하고 고객의 온라인 선호가 증가하면서 핀테크로의 고객 이동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금융, 지급결제, 중소기업 대출과 자산관리 등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은행업이 이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부단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국내 은행의 경쟁력은 어느정도 일까.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분야의 성숙도는 조사대상 144개국 중 80위다. 아프리카 우간다(81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나(52위)·보츠와나(53위)·콜롬비아(63위)보다 낮다.

세부 평가항목에서도 은행 건전성 122위, 대출 이용가능성 12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107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 100위 등으로 하나같이 100위권 아래였다.

수익성과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금융권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0.4%다.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도 안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보험료 자율화, 삼성·동부·현대 등 대형사 '수혜'

금융당국, 상품개발·가격 등 각종 규제 풀어
고객정보 최다 확보 손보사 상대적으로 유리

금융당국이 22년 만에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보험산업의 무한경쟁 체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객정보를 많이 확보한 손해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의 수혜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서 표준이율과 위험요율 폐지 등 보험료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또 오는 2017년 말까지 보험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3.25%로 묶여 있는 표준이율이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고채 금리 등과 연동된 표준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다.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는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6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된다.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는 사후 보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 등만 사전 신고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사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각사의 운용수익률 등 능력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금융위의 로드맵은 보험료 가격 자유화와 신상품 개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험률, 표준이율 관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험상품 가격에 완전 자유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보험 신상품 개발과 적정 가격 산출은 각사의 경험요율 등 고객정보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형사가 유리하다"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영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표준이율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획일화된 상품, 비슷한 가격으로 경쟁해온 보험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시장의 경쟁 속에서 고객정보가 많은 상위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또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규제가 폐지되면 해외투자에 강한 삼성, 동부, 현대, KB, 한화손해보험과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사가 수혜를 볼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4(IFRS4) 연착륙을 위한 것으로 자본여력과 상품 경쟁력을 갖춘 상위권사 위주로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미래에셋증권 파생결합증권 10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4.5% 노녹인 스텝다운형 ELS상품을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10종을 오는 23일 오후 2시까지 총 10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결제, 전 세계 어디서나 가능"

KB국민카드
'유니온페이 모바일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최근 KB국민카드가 선 보인 '유니온페이 모바일카드'는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과 LG유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 발급 받은 카드로 해외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실물 플라스틱 카드가 없어도 해외 가맹점에서 터치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LG유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된 유심(USIM) 칩에 유니온페이의 터치 결제 서비스가 추가돼 별도의 유심 칩을 발급 받거나 기존 유심 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발급 받은 카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중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600만개의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는 NFC 결제가 지원되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추가 연회비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하다. /김보배 기자

현대증권 매각 불발 후폭풍 거셀 듯

이사진 회동, 주총 취소 등 논의
"자구계획 이행엔 문제 없다"
"증권가 구조조정 찬물" 우려



현대그룹의 현대증권 매각이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애초 현대증권 매각은 현대그룹 자구계획의 핵심으로 평가받은 만큼 현대그룹 재무개선 작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공백이 예상되는 현대증권의 앞날도 안갯속에 빠질 전망이다.

◆정상화, 현 경영진 신뢰가 관건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이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 취소를 논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애초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으로는 새 대표로 내정된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 등 신규 이사진 선임안이 상정돼 있었다. 주총 취소는 매각이 무산된 만큼 임시 주총을 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매각 불발에 따른 자동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증권 인수 절차를 밟아오던 오릭스PE는 지분 인수계약 기한 종료 이후 계약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론짓고 이 사실을 지난 19일 현대그룹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기범 전 사장 등이 주축이 된 현대증권 인수단도 자동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현대증권은 윤경은 현 사장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지만 윤 사장도 대주주에 신용공여 혐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예정돼 있어 경영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윤 사장의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 적잖은 풍파를 겪은 만큼 강한 내성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윤 사장 등 기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자구계획 영향 미미

현대 측은 현대증권 매각이 성공할 경우 자구안에서 밝힌 목표액을 초과달성(3조5870억원)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자구노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대상선은 현대상선 미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테이너 터미널(CUT)과 시애틀 타코마 터미널(WUT)의 지분 일부(49%)를 매각해 1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미국 사모펀드 린지 골드버그 등과 가격에서 이견을 보이며 무산됐다.

현대그룹은 자구계획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이달 23일 현대상선이 갚아야 할 2000억원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대상선은 지난 4월 현대증권 매각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갚는 조건으로 산은에서 이 돈을 빌렸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증권 매각을 제외하고도 현대상선의 유상증자 등으로 이미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매각 등 M&A시장 후폭풍?

시장에서는 증권가의 구조조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수합병(M&A)이다. KDB대우증권, LIG투자증권 등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KDB대우증권은 KB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이 맞불을 놓고 있다. 자본금 4조원, 총자산 34조원 규모의 대우증권이 누구 품에 안기느냐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의 매각 불발은 파는 쪽 보다는 오릭스의 의지가 문제 였다"면서 "대우증권은 업계의 판도를 흔들 만큼 매머드급 매물"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RX, 아일랜드거래소와 양해각서 체결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거래소연맹(WFE) 총회 참석 중 아일랜드거래소(ISE)와 양국의 자본시장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세 번째)과 디어드라소머스 아일랜드거래소 CEO(왼쪽 두 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전자증권' 시대 열린다

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물 발행이 필요 없는 전자증권 시대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을 통해 하는 것이다.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이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계좌관리기관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은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된다.

또 제정안은 전산 착오로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 존재하는 경우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 장세 열릴까

<70년대 미국 기관화 장세>

대형주 강세로 기대 고조
유통물량 많은 종목 주목

美 등 대외변수 지켜봐야
외국인 움직임 주시 필요

1969~1973년 미국 증시에서 가장 유행한 말은 '니프티 피프티(nifty-fifty)'였다. 연기금 투자가 몰리면서 미국 증시를 주도했던 이른바 '기관화 장세'를 일컫는다. 당시 기관투자가는 증시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철저히 대형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다. '멋진 50종목'이 바로 기관들의 투자 대상이었다. 이들 50종목 주가는 시장 평균에 비해 갑절 이상 올랐다.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주의 강세로 한국판 '니프티 피프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불확실성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대형주에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중심으로 압축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덩치 큰 놈'이 다시 수레를 끌까

70년대 시장을 떠들석하게 했던 '니프티 피프티' 장세에서는 코카콜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필립모리스, P&G, 맥도널드, 월트디즈니 등이 시장을 이끌었다.

한국시장은 어떨까.

국내 증시에서도 대형 우량주는 전통적으로 기관의 '사랑'을 받아왔다.

유통 주식수가 많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또 대형주는 연말이면 배당매력까지 더해진다.

삼성전자의 올해 3·4분기 '깜짝 실적'에서 나타난 환율 효과가 대형 수출주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인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대형주의 3·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30.8%, 23.1%로 예상된다.

KDB대우증권 유명간 연구원은 "올해 4·4분기에도 대형주의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주의 3·4분기 실적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신용스프레드 확대로 중소형주에게 불리한 환경이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0년~2014년까지 4·4분기에 대형주의 수익률은 중형주와 소형주를 각각 평균 2.5%포인트, 5.4%포인트 웃돌았다. 코스피 대비 상승확률도 80%나 됐다.

반면 미국과 중국 등 G2(주요 2개국)를 둘러싼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국내 기업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BNK투자증권 김경욱 연구원은 "최근 증시 상황은 부진한 경기가 유동성 환경을 지속시키는 'Bad is Good'(나쁜 게 좋은 것) 모드에 불과하다"며 "신흥국에 이어 선진국 경기까지 부진해 국내 대형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원·달러 환율 하락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매수 지속 여부가 관건

대형주 주도 장세의 열쇠는 외국인이 쥐고 있다. 분위기는 좋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은 10월 들어 2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가량을 순매수했다. 6~9월 4개월 연속 8조695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운지 다섯달 만이다.

반면 기관의 실탄은 꾸준이 줄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최근 7일 동안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순유출된 자금은 5623억원이었다. 이는 코스피지수가 2000 안팎에서 움직이자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이현주 연구원은 "2012년 이후 지수대별 하루평균 매수금액을 보면 외국인은 주로 코스피 2000 이상에서 가장 강한 매수 강도를 보여줬고, 국내 기관은 반대로 2000선 위에서는 주로 환매에 따른 매도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미국 등 대외변수도 지켜봐야 한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따른 외국인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호 기자


편안하게 모시는 역무마이스터,
안정국
안심을 드리는 승무마이스터,
민용기
최고성능으로 모시는 차량마이스터,
김현철
지혜를 더하는 기술마이스터,
임동식

GS건설, 브랜드타운 야심… 광명 '눈독'

철산주공 수주 릴레이 도전
성공 땐 6000가구 규모 조성
내달 3·13일 입찰 결과 주목


광명철산 8·9단지 조감도. /GS건설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 6000가구 규모의 자이브랜드타운이 조성된다.

20일 GS건설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명 철산주공 8·9단지 수주에 성공한 GS건설은 올해 시공사 선정 물량으로 나온 철산주공 10·11단지와 광명 9R구역 입찰에도 나섰다.

GS건설 관계자는 "철산주공 10·11단지 사업 수주는 지난해 8·9단지 수주에 이은 것이며 사업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8·9단지를 비롯해 이번 수주까지 성공하게 되면 약 6000가구에 가까운 자이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0월 광명철산주공 8단지 1484가구, 9단지 580가구 등 2064가구 단지를 재건축해 329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추가로 수주하게 될 철산주공 10·11단지는 연면적 6만7737여㎡ 규모에 용적률 249.96%를 적용해 지하2층~지상40층 규모의 아파트 1330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마감은 11월 3일이다.

9R구역은 광명시 광오로 23번길 4 일대 7만779㎡에 공동주택 1486가구(임대주택 259가구 포함.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세대수 변경 가능성 있음)를 신축할 예정이다. 입찰 마감은 11월 13일이다.

공사는 확정지분제로 진행된다.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또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무상지분율의 재산권을 제공하고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관심이 덜한 편이어서 앞서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사업 수주를 위해 세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진행된 철산주공 10·11단지 현장 설명회에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2곳, 9R구역에는 GS건설, KCC건설, 효성, 호반건설, 일성건설, 삼호, 한신공영 등 7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분양단신

강남·북 사통팔달 교통망… 서울숲 조망

GS건설 '서울숲리버뷰자이'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100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서울숲리버뷰자이'(조감도)를 이달 말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숲리버뷰자이는 지하 2층~지상 39층 7개동으로 이뤄져 있고 1034가구 가운데 일반분양은 294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은 ▲59㎡ 37가구 ▲84㎡ 192가구 ▲108㎡ 46가구 ▲128㎡ 16가구 ▲130㎡ 2가구 ▲141㎡ 1가구로 구성됐다. 일부 고층의 경우 한강과 중랑천, 서울숲 조망이 가능한 프리미엄이 있다.

지하철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로 서울 강남과 을지로, 종로, 광화문 등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인근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등을 이용하면 강남으로 연결되고 주변 강변북로와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각지와 주변도시로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 주변으로 행당초, 무학중, 금호여중, 광희중, 한양사대부고, 무학여고 등 초·중·고교가 있다. 한양대와 동국대, 숭의여대 등이 가깝고 강남 학원가 접근성도 좋다.

견본주택은 강남구 대치동 983-5 자이갤러리 2층에 마련되며 이달 말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62~84㎡ 중소형 평면 1425가구 대단지

대우건설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대우건설은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에서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조감도) 1425가구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산 54의 1 일대에 위치한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는 1425가구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18개동으로 지어진다.

단지는 ▲전용면적 62㎡ 422가구 ▲74㎡A 224가구 ▲74㎡B 119가구 ▲84㎡ 660가구 등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됐다.

인근에 성남~여주 복선전철 광주역(2016년 예정)이 들어설 예정이며 판교역까지 3정거장, 서울 강남역까지 7정거장 등 3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2017년 전구간 개통예정)가 단지 인근까지 개통되며 단지 앞 3번 국도를 통해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제2영동고속도로(2016년 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반경 2.5㎞내에 쌍령초·광주초·광주중·경화여중·광주고·ICT폴리텍대학·서울장신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와 롯데시네마, 광주터미널·, 참조은병원 등이 있는 광주시내가 차로 5분거리에 있다. /박상길 기자

7·9호선 더블역세권·주변 개발호재 풍부

현대산업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22번지 일대에 상아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투시도)를 분양한다.

20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1층 4개동이다. 전용면적은 49~170㎡이며, 416가구(임대 57가구·조합 266가구)로 구성됐다. 이 중 일반분양은 93가구다.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과 7호선 청담역이 있다. 더블 역세권 단지여서 교통이 편리하다. 주변 개발 호재도 좋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동 옛 한전부지를 매입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전망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상길 기자

내달 전국에 6만7091가구 쏟아진다

강남3구 재건축 대량공급 등
10월比 아파트 신규분양 13%↑

오는 11월 전국에 아파트 6만7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전국 신규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6만7091가구다. 10월 5만9407가구보다 7684가구(12.9%) 늘어난 물량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1만114가구(29.7%) 증가한 4만8488가구, 지방은 전달 대비 3430가구(15.6%) 감소한 1만860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강남 3구에서 재건축 일반분양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416가구(일반분양 93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 607가구(일반분양 153가구), '아크로리버뷰' 595가구(일반분양 41가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이파크' 829가구(일반분양 257가구),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9510가구(일반분양 1550가구) 등 2만908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경기도에선 평택시 칠원동 '평택칠원동동문굿모닝힐' 2803가구, 동탄신도시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7차 710가구·8차 671가구, 'e편한세상동탄(A-45 B/L)' 1526가구 등 2만7204가구가 분양된다. 인천은 남동구 논현동 '인천논현유승한내들와이드오션' 376가구가 다음달 공급된다.

지방별로는 경남이 3927가구로 공급 물량이 가장 많고 ▲전북 3317가구 ▲경북 2985가구 ▲강원 1802가구 ▲부산 1749가구 ▲제주 1315가구 ▲대전 986가구 ▲충남 892가구 ▲전남 642가구 ▲울산 520가구 ▲대구 468가구 등이다. /박상길 기자

LH 대학생 주택건축전 '옥탑방의 재해석'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19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대상 수상작으로 이양선씨(경북대)의 '옥탑방의 재해석'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주변의 익숙한 도시지역을 설계대상지로 자율적으로 선정, 기존 도시조직에 대한 훼손이나 변형 없이 공동생활이 가능한 '가로주택 유형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63개 대학 172개 팀이 작품을 접수했으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2점), 장려상(15점) 등 2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옥탑방의 재해석은 "주변 도시조직의 스케일을 배려하고 2필 가구 필지의 다소 단순한 주변 맥락을 명쾌하게 필지 안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벨의 적절한 소화, 흥미로운 주거 유니트가 결합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허정 외 2명(가천대)의 '성남시 태평동 가로주택', 은상은 김수영 외 2명(서울시립대)의 '쪼개고 더하다'가 받았다. 동상은 박창욱 외 2명(대구가톨릭대)의 '이끌다', 윤호성 외 2명(한남대)의 '공간사이, 사람사이'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장학금과 상패, 해외 건축기행 기회를 비롯해 입사 전형시 필기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1시 30분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개최된다. /박상길 기자

샤넬 무릎 꿇린 국산 아이웨어 '젠틀몬스터'

론칭 5년만에 명품 브랜드 인기 능가
전지현 드라마 착용… 유커 눈도장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명품브랜드 구찌, 에르메스, 샤넬도 아이웨어 분야에서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아무리 노력해도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지 못할 상대)'이 있다.

바로 국산 아이웨어브랜드 '젠틀몬스터'가 그 주인공이다.

젠틀몬스터는 브랜드 론칭 5년차를 맞은 신생 브랜드지만 영향력은 이미 국내를 넘어섰다. 안방에서만 명품 브랜드를 능가하는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다.

20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공동 본점(영플라자 포함)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산(은련카드 매출 기준) 브랜드는 명품 '까르띠에'였고, 2위는 국산 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차지했다.

3~10위가 루이뷔통, MCM(패션·잡화), 샤넬, 설화수(화장품), 바쉐론콘스탄틴, 티파니, 구찌, 불가리 등임을 감안하면 유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산브랜드에 등극한 셈이다.

젠틀몬스터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극중 배우 전지현이 썼던 선글라스 브랜드로 유커들의 눈도장을 받고 있다. 젠틀몬스터는 유커들 사이에서는 한국 방문 시 반드시 구매해야하는 잇아이템으로 자리잡았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서 젠틀몬스터는 월평균 1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이중 유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웃돈다.

젠틀몬스터는 과연 어떤 브랜드일까.

젠틀몬스터는 (주)스눕바이가 론칭한 아이웨어브랜드로 브랜드 철학으로 '설렘'을 표방한다. 2011년 론칭한 젠틀몬스터는 선글라스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웨어 전반을 취급하는 브랜드다. 초창기 가산디지털 단지 본사에 오픈한 쇼룸은 최근에는 핫플레이스인 강남과 홍대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은 물론 현대백화점, AK백화점까지 입점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하반기 기준 젠틀몬스터는 국내 5개의 플래그쉽 스토어를 운영 중이며 12개 백화점에서 직영 매장을 보유했다. 안경점 200개에도 입점하면서 탄탄한 유통망을 갖췄다. 국내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해외시장으로도 행보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지사를 설립한데 이어 올해 콩 최대 편집샵 I.T에 입점했으며 올해 말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유커들의 인기에 힘입어 중국 럭셔리 아이웨어 편집샵 PUYI를 론칭하기도 했다.

현재 젠틀몬스터는 유럽, 아시아, 미주를 포함한 전 세계 30개국, 400여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국 북경, 상해, 홍콩 등에도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이웨어 업계 관계자는 "안경점에서 국내 고객 뿐만 아니라 해외고객들이 앞다퉈 젠틀몬스터를 찾으면서 안경점 풍속도 바뀌고 있다"며 "이전에는 영문이나 중국어로 구찌나 샤넬 신상품을 보유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면 최근에는 '젠틀몬스터 신상품 판매' 등으로 안내문 내용이 변경되고 있다"며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현대百 '패션코드 2016 S/S' 공식후원
'K패션' 육성 위한 공동사업 추진


걸그룹 EXID의 정화(오른쪽)와 솔지가 20일 서울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열린 '패션코드 2016 S/S'에 참석, 런웨이를 걷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주관하는 '패션코드 2016 SS'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패션코드는 국내 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주 전시회로 패션쇼, 공연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문화 전문 행사다. 국내외 바이어 간 수주상담회가 함께 진행돼 판로 개척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 측은 "국내 패션 유통의 중심인 백화점 업계를 대표해 정부기관과 중소 브랜드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K패션' 육성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22일까지 서울 남산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열리는 행사에 전용 존을 마련하고 신진 디자이너 8개 브랜드의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을 지원한다.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별도의 시상식도 연다. '패션코드 디자이너 어워드'를 신설해 참여 브랜드 중 성장가능성과 독창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브랜드 3개를 선정, 총 2000만원의 시제품 제작 지원비를 수여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20일 오전 서울 남산제이그랜하우스에서 열린 '패션코드 2016 S/S'에서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CU
30초 렌지업으로 즐기는 '따뜻하게 데워먹는 간편식'

CU(씨유)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도록 30초 렌지업으로 즐기는 '따뜻하게 데워먹는 간편식' 3종을 지난 8일에 이어 22일 선보인다.

허니에그모닝토스트(180g, 2000원)는 다양한 토핑과 함께 토스트 표면에 꿀을 발라 달콤하고 촉촉한 맛이 특징이다. 필리치즈모닝머핀(95g, 2300원)은 잉글리쉬 머핀 사이에 불고기와 할라피뇨를 섞어 만든 한국식 필리치즈 토핑으로 깔끔한 맛을 강조했다.

잇츠빅 라인에도 콘치즈맛이 추가된다. 잇츠빅소시지콘치즈(190g, 2500원)는 기존 소시지보다 30% 더 큰 사이즈에 돈육이 70% 가까이 함유된 고급 소시지를 사용한다. 또 달콤하고 고소한 맛의 콘치즈를 더했다.

따뜻하게 데워먹는 간편식 시리즈 3종은 간단한 렌지업으로 방금 오븐에서 구워낸 듯한 빵 맛과 고소한 치즈의 풍미가 진해져 카페 수준의 퀄리티를 재현했다고 CU측은 전했다.

CU에서는 따뜻하게 데워먹는 간편식 시리즈 3종을 오전 6~10시까지 즉석 원두 커피, 주스 등 음료와 함께 구입 시 최대 30% 할인된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정용기기자



롯데마트, 훈제오리 전품목 '등급 판정육' 판매



롯데마트가 훈제오리 전품목에 대해 등급 판정을 받은 원료육으로 가공된 상품만 선별해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오리고기의 품질 등급 판정 기준을 제정했지만 품질 판정제 도입을 생산업체에 자율에 맡기면서 대부분의 훈제오리가 품질 판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육을 사용해왔다.

롯데마트 축산MD(상품기획자)는 오리고기의 품질제고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직접 오리고기 가공 공장을 방문하는 등 자체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가진 업체를 선정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품질 판정을 받은 원료육으로 만든 훈제오리만을 공급받기로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마트는 이날 서울역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오리협회와의 시식행사를 시작으로 등급 판정을 통과한 1등급 이상의 원료육으로 가공한 훈제오리만 공급 받는다.

한편, 롯데마트는 22일부터 28일까지 '믿고 먹는 훈제오리 대전'을 전점에서 진행해 1등급 판정을 받은 훈제오리 10만 마리를 기존가 대비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홈플러스 SPA브랜드 F2F, 겨울 신상품 출시

홈플러스 SPA 패션브랜드 F2F가 오는 22일부터 겨울 신상품 400여 종을 출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트를 비롯해 기모, 퀼팅, 라이트 패딩 등의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아우터류를 대거 선보인다.

남성 코트는 엉덩이를 덮는 기장과 깔끔한 핏으로 수트 위에 입어도 부피감이 적어 활동이 용이하다. 고급스러운 하운드 투스체크(검정이나 흰색 혹은 진하고 엷은 줄무늬로 체크의 형태가 사냥개의 이빨처럼 보이는 데서 유래된 명칭)와 도네갈 원단의 두 가지 스타일로 출시되었으며 가격은 8만9900원이다.

여성용 코트와 패딩점퍼는 다양한 핏과 기장감을 사용했다. 올해는 특히 트렌디한 박시핏과 부드러운 코튼컬러(블랙, 베이지, 핑크)를 사용해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박시핏 코트(7만9900원)가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패딩점퍼이면서도 슬림한 핏을 강조해 한겨울에도 핏감을 살릴 수 있는 슬림아웃터도 다양하게 출시했다. 여성복 아우터류는 모두 11가지 스타일로 가격은 패딩조끼 2만9900원부터 7만9900원이다. 이밖에도 남성 스웨터40종과 아동 점퍼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10월 22일부터 2주 동안 F2F 겨울 신상품에 한해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유현희 기자

이산가족 '백세주'로 건배!

국순당

상봉행사 때 만찬주 지원 대박 막걸리·본초 복분자 등 저알코올 전통주 위주 제공



이산가족 상봉 만찬주로 선정된 백세주(왼쪽)와 대박 막걸리. /국순당

국순당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전통주인 백세주, 대박 막걸리, 본초 복분자, 본초 상황버섯을 만찬주로 제공한다.

만찬주는 상봉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넣어 빚은 전통주 위주로 제공한다.

'백세주'는 12가지 한약재를 넣어 빚은 전통 약주로 깔끔한 맛과 한약재가 어우러져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전통주다.

'대박' 막걸리는 전용 효모를 사용하여 달지 않고 깔끔한 막걸리 본연의 맛을 살린 제품이다.

'본초 복분자'는 고창산 1등급 복분자를 원료로 빚었다.

'본초 상황버섯'은 국내산 상황버섯과 아카시아 꿀을 원료로 빚어 맛과 향이 풍부한 전통주다.

국순당 이상협 마케팅본부장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의 만찬 행사에 국순당 전통주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백세주, 본초 복분자, 본초 상황버섯, 대박 막걸리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주와 저도주로 제공되는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만찬주로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현희기자

情 넘치는 초코파이… 오리온 '착한 포장 프로젝트'

원가절감, 소비자에게 돌린다

가격 변동 없이 11.4% 증량 초콜릿 함량↑·식감도 개선



오리온이 포카칩에 이어 초코파이의 용량을 11.4% 늘린다. /오리온

오리온이 국내 파이 1위 브랜드인 '초코파이情'을 가격 변동 없이 11.4% 용량을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오리온은 초코파이의 개당 중량을 35g에서 39g으로 늘린다. 용량 증가는 지난해부터 포장재를 개선해 원가 절감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오리온은 지난달 가격변동 없이 포카칩의 중량을 10% 늘린 바 있다.

초코파이는 단일 제품으로 국내에서만 연간 4억5000만개,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메가브랜드로 이번 증량에 따른 생산원가만 3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양을 늘린 포카칩의 추가 생산비까지 합칠 경우 제품 증량으로 연간 총 70억원 가량의 비용을 더 써야한다.

증량과 더불어 초코파이 맛 개선도 함께 했다. 더 진하고 달콤한 초콜릿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초콜릿 함량을 약 13% 늘렸고, 식감도 더욱 부드럽게 개선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오리온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과대 포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지난해 11월 21개 제품의 포장재를 축소하고 8개 제품의 양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착한 포장 프로젝트'를 전격 실시했다.

지난 3월에는 연간 약 88톤의 포장재 잉크 사용량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2차 포장재 개선을 단행했다.

한편 1974년 출시된 초코파이는 오리온과 함께 성장해온 제품으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국민간식으로 사랑 받고 있다.

초코파이의 수출 국가는 60여개국이며 연간 글로벌 판매량은 21억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이번 증량과 함께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국내 파이시장 1위 입지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국산 무항생제 한우·닭… "국물맛 일품"

올가홀푸드

'닭곰탕' 등 즉석탕 3종 출시



풀무원 계열의 친환경식품 유통기업 올가홀푸드(이하 올가)가 국내산 한우뼈와 닭뼈를 장시간 고아서 만든 '올가 진한 국물맛이 살아있는 즉석탕' 3종(사진)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올가 진한 국물맛이 살아있는 즉석탕' 시리즈 3종은 '한우 갈비탕', '한우 우족탕', '닭곰탕'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무항생제 한우와 닭을 사용했으며 화학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았다.

가격은 갈비탕이 1kg 기준 1만4900원, 우족탕이 1.2kg 기준 1만6900원이며 닭곰탕은 1kg이 1만900원이다.

한편 올가는 25일까지 '올가 진한 국물맛이 살아있는 즉석탕'을 2개 구입시 20% 할인하는 소비자 이벤트를 연다.

'올가 진한 국물맛이 살아있는 즉석탕'은 올가 전국 직영 매장과 가맹점 바이올가, 올가 인터넷쇼핑몰(www.orga.co.kr)에서 구입 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200가지 막걸리 한 자리에… 자라섬 '막걸리 축제'

29일부터 나흘간 페스티벌

독일 최대의 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에 버금가는 막걸리 축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막걸리협회는 오는 29일부터 4일간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2015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막걸리협회가 주최와 주관을 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우리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막걸리의 날'로 정하고 그해에 갓 수확한 햅쌀로 빚은 첫 막걸리를 선보이는 자리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프랑스 '보졸레 누보' 출시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술 관련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술 축제로 자리잡기 위한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다.

주최·주관 기관인 한국막걸리협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막걸리의 날' 기념 행사를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규모를 확대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막걸리 자체가 문화 축제의 소재이며 소통의 장이 되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축제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국제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한 가평 자라섬에 개막식과 공연을 위한 무대를 설치하고 시대별,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전국의 유명 막걸리와 먹거리가 마련된 주점과 주제별 거리가 조성된다. 행사장 외부에는 이벤트와 공연을 위한 프린지 무대, 지역 특산물 장터, 야외 주점,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며 캠핑도 즐길 수 있도록 카라반과 캠핑장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자라섬 주 행사장인 대형 돔 외부에는 넓은 야외 공간을 축제 마당으로 조성해 200여종의 다양한 막걸리와 우리술 품평회에 입상한 전통주·지역 먹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막걸리협회 박성기 회장은 "막걸리 축제 기획을 위해 수년간 여러 나라를 돌며 술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둘러보고 우리의 술 문화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왔다"며 "올해부터 막걸리 축제는 막걸리 매니아는 물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항노화 안티에이징… 주름개선 혁신

네이처리퍼블릭

'그린티놀 에센스' 출시



네이처리퍼블릭은 '그린 레티놀'이라 불리는 록샘파이어 추출물과 혁신적인 주름개선 기능 성분인 이데베논을 함유한 '그린티놀 에센스(사진)'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핵심 성분인 록샘파이어는 청정한 프랑스 브리타뉴 해안의 절벽이나 바위 틈에서 높은 염도를 견디며 자생하는 극한 식물로 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최근 동안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초기 노화를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그린티놀 에센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젊은 안티에이징 라인인 '그린티놀'은 에센스와 함께 멀티토너, 아이세럼, 크림까지 총 4종으로 구성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항노화 안티에이징 제품인 '그린티놀 에센스' 출시를 기념해 멀티토너(31㎖)와 크림(5㎖), 마스크팩, 화장솜이 포함된 특별기획세트를 선보인다. /유현희 기자

일동후디스,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

내달 12일까지 20~49세 女 100명

산양분유 1위 기업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서포터즈 '후디스타즈' 1기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후디스타즈는 일동후디스의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사용, 체험해보고 일상생활 속의 경험담을 각자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일동후디스의 온라인 서포터즈이다.

모집기간은 내달 12일까지며 트렌드스타즈 50명, 맘스타즈 5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한다.

전국 모든 20~49세의 여성이라면 지원 할 수 있으며 '산양분유', '트루맘' 등으로 유명한 일동후디스의 유아식 제품을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는 맘스타즈의 경우 0~4세의 아기엄마만 신청이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내달 25일이다.

후디스타즈는 활동기간(3개월)은 물론 활동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다.

매월 2회 체험제품이 무료로 제공되며 정해진 미션 달성 시 온라인 쇼핑몰 후디스몰(www.foodismall.com)의 마일리지 3만 포인트도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후디스몰 프레스티지 멤버십에 무료로 가입되며 월별 우수활동자, 최종 우수활동자에게는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임산부 배려석, 알고 있나요?

서울도시철도공사

강동경희대병원과 캠페인 약자 배려문화 확산 나서


서울도시철도가 지하철 칸 중앙7개 좌석 양끝에 마련한 임산부 배려석. /서울도시철도공사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21일 7호선 시민건강열차와 대림역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강동경희대병원과 공동으로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7호선 군자역에서 오후 2시 20분께 출발하는 시민건강열차 내부에서 진행한 후 대림역에서 하차해 대합실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사와 관계기관 직원 10여 명이 임산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시민들에게 홍보 알림쪽지와 물티슈를 나눠준다.

7호선 시민건강열차는 손씻기, 절주, 치매·임산부 배려에 대한 정보와 안내 문구로 지하철 내부를 꾸민 열차다. 시민들에게 건강정보를 알리고자 지난달 2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특히 지하철 칸마다 중앙 7개의 좌석 양 끝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해 분홍색으로 래핑하고 '임산부 배려석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구를 넣어 자연스러운 양보를 유도하고자 했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선해 2·5호선에 우선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좌석 등받이 벽에 스티커를 붙인 것이 전부였던 것에 반해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꾸미고 좌석 바닥에는 안내 문구를 표시했다.

공사는 앞서 지난 8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9호선과 함께 임산부 자리양보와 인식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년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은 "많은 분들이 어르신이나 장애인 승객을 위해서는 양보를 잘해주시는데, 사실 임산부도 그분들과 같은 교통약자"라며, "이번 캠페인이 임산부도 배려받는 문화가 정착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green@metroseoul.co.kr

몬스터 분장하면 할로윈 파티 할인

쉐라톤 인천 호텔

31일 '몬스터들의 토요일 밤' 입장료 3만원에 무한 생맥주


쉐라톤인천 호텔에서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할로윈파티가 열린다. /쉐라톤 인천호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쉐라톤 인천 호텔에서 '몬스터들의 토요일 밤' 콘셉트로 DJ와 함께하는 할로윈 파티가 열린다.

할로윈 파티는 입장료 3만원으로 웰컴 드링크 할로윈 스페셜 칵테일 한잔과 스낵을 곁들인 감자튀김 안주, 카스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간단한 할로윈 액세서리 착용 시 입장료를 10% 할인 한다.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할로윈 분장 혹은 리얼한 몬스터 분장을 하고 온 사람에 한해 입장료 20%가 할인 된다.

할로윈 파티는 호텔 1층 트렌디바 비플랫(Bb)에서 진행된다. 바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호박 램프, 거미줄, 잘린 발목 모양의 공포스러운 아이템과 몬스터로 분장한 직원들로 호러스러운 할로윈 파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현장에서는 할로윈 포토제닉상,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호텔 식사권 등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쉐라톤 인천 호텔 관계자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할로윈 파티를 열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매년 10월 31일은 쉐라톤 인천 호텔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 라고 전했다.

문의 : 비플랫(Bb) 032-835-1713

/유현희 기자 yhh1209@

관광·뷰티 결합… 고객만족도 높인다

스탠포드호텔 서울

설레임피부과와 업무 제휴 팝업스토어 열고 상품 판매


스탠포드호텔 서울은 설레임코스메틱&설레임피부과와 마케팅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의료관광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스탠포드호텔

미국 뉴욕 맨하탄에 본사를 둔 상암동 스탠포드호텔 서울과 설레임피부과·설레임코스메틱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호텔 내에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스탠포드호텔은 설레임코스메틱의 히트 상품인 '설레임 블루밍셀 듀얼이펙트 마스크팩'을 어메니티 상품으로 비치하고 팝업스토어를 열어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또 설레임피부과&코스메틱과 함께 호텔과 휘트니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와 뷰티클래스도 열 예정이다.

설레임코스메틱의 '블루밍셀 듀얼이펙트 마스크팩은 셀러브리티들과 피부고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연예인 마스크팩, 피부과 마스크팩, 모델 마스크팩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다. 특급호텔 어메니티로 입점하여 국내외 고객들에게 높은 만족을 얻고 있다.

설레임피부과 강정하 대표원장은 "피부과가 내원하는 고객에게 시술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헤어디자인 끼 뽐낼 사람 모여라

박준뷰티랩

12월 7일 유니버셜 아트센터 업계 첫 신인 발굴 컨테스트 스타디자이너 헤어쇼도 마련



박준뷰티랩을 운영하는 피엔제이가 신인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컨테스트를 오는 12월 7일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박준뷰티랩 컨테스트는 박준뷰티랩 프랜차이즈에 소속된 직원은 물론, 미용을 공부하고 있는 일반인들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용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될 스타디자이너들의 헤어쇼도 관람할 수 있다. 헤어쇼에는 러시아의 거장 게오르기 콧도 참여할 예정이다.

'Who's Next?'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박준뷰티랩 컨테스트에서는 프랜차이즈 대상 인턴부분과 디자이너 부분, 일반인 대상 학생부분과 성인부분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 선정된 수상자들 중 디자이너 부분 대상에게는 크루즈 여행권을 부상으로 제공하며 인턴 부분 수상자에게는 1년 교육비 지원을, 일반 부분 수상자에게는 박준뷰티랩 매장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상이 준비돼 있다.

피엔제이는 헤어숍 프렌차이즈 최초로 열리는 박준뷰티랩 컨테스트에서 미용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미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는 행사로 보다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컨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안내는 박준뷰티랩 본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유현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김선종 교수, 세계치과연맹 최우수상

악골괴사증 바이오마크 탐지 포스터 연구발표 부문서 영예



김선종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사진)가 최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2015년도 세계치과연맹(FDI)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술대회 포스터 부문에는 전 세계 치과의학자들이 600여개 포스터를 출품해 FDI 교육위원회에서 E-Poster로 채택된 293개의 포스터 연구발표가 진행됐으며 김선종 교수가 전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약물 관련 악골괴사증의 바이오마커 탐지'를 주제로 한 연구를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이대목동병원에 개설한 난치성턱뼈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에서 턱뼈재생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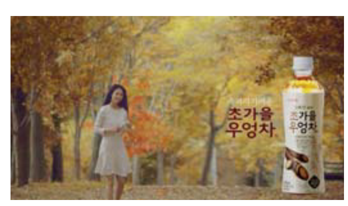
2014년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AAOMS), 세계임플란트학회(AO), 2015년국제보철학회(ICP), 세계치과의사연맹학술대회(FDI)에서 초청연자로 초대되는 등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학자다.

/이예진 기자

몸을 가뿐하게… 이연희와 우엉차 즐겨요

롯데칠성음료

'초가을 우엉차' 새 광고 선봬



롯데칠성음료가 배우 이연희를 모델로 한 '잘빠진 하루 초가을 우엉차' 신규 광고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최근 국내 차음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초가을 우엉차의 붐업 조성을 위해 제작됐다. 배우 이연희의 단아한 모습과 초가을의 정취를 통해 '초가을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볍게 하는 초가을 우엉차'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유현희 기자

star bag



'우아하게' 데뷔

JYP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트와이스**의 데뷔 앨범 '더 스토리 비긴즈'가 20일 자정 공개됐다. 타이틀곡 'OOH-AAH하게(우아하게)'를 포함해 총 6개의 트랙을 수록했다.

日 아이튠즈 1위



가수 **XIA준수**가 19일 발표한 새 미니앨범 '꼭 어제'가 일본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다. 태국·마카오에서도 1위에 올랐으며 홍콩·대만·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차트에서도 톱3 안에 올랐다.

멜론 뮤직 어워드 MC



배우 **서강준**이 2015 멜론 뮤직 어워드 MC로 발탁됐다. 서강준은 다음달 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멜론 뮤직 어워드 무대에 올라 케이팝 별들의 잔치를 이끌 예정이다.



'포에버 러브' 발표

밴드 **버즈**가 20일 자정 새 싱글 '포에버 러브(Forever Love)'를 발표했다. 전성기 시절의 버즈 음악을 담은 노래다. 버즈는 다음달 21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9년 만의 전국 투어 콘서트도 개최한다.

여행 프로그램 MC



방송인 **문지애**가 YTN의 새 여행 프로그램 '문지애의 휴(休)' 진행을 맡는다. 각 분야 전문가가 출연해 자신만의 여행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오는 24일부터 4주 동안 방송된다.



5인조 밴드로 돌아온 전자양 (왼쪽부터 전자양, 류지, 정아라, 윤정식, 유정목).

"음악 말고 재미있는게 또 있나요?"

8년 만에 새 앨범 낸 전자양



5인조 밴드 체제로 재편성
시시각각 변하는 음악 추구
내달 8일 단독 공연 개최
밴드 음악 계속 추구하고파

전자양의 음악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포크를 기반으로 섬세하고 연약한 감성을 담았던 데뷔 앨범 '데이 이즈 파 투 롱(Day is far too long)', 그리고 일렉트로닉과 실험적인 요소를 가미했던 두 번째 앨범 '숲' 사이의 간극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전자양의 음악을 진정한 '인디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최근 발표한 새 앨범 '소음의 왕'은 전자양의 새로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음반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솔로 프로젝트에서 5인조 밴드 체제가 됐다는 것이다. '프렌지'와 '9와 숫자'들 출신인 유정목, 프렌지의 윤정식, 마이티 코알라 출신 정아라, 브로콜리 너마저의 류지가 새롭게 가세했다. 인디 신의 내로라하는 뮤지션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새 앨범을 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8년이다. 그동안 전자양은 계속해서 음악 작업을 해왔다. '숲' 발표 이후 대학원을 마쳤고, 프렌지·흐른 등 다른 밴드와 뮤지션의 앨범을 프로듀싱했다. 영화 '하나안'의 음악도 담당했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새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음악 작업이 자연스럽게 밴드 구성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새 앨범 '소음의 왕'은 총 5곡에 러닝타임은 24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음악의 밀도는 70분에 달했던 '숲'에 못지않을 정도로 빽빽하다. 이전까지의 앨범이 내성적인 소년의 조심스러운 고백 같았다면 새 앨범은 그런 소년이 비로소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는 느낌이다. 앨범 커버도 이런 변화를 느끼게 한다.

음악적인 변화도 눈에 띈다. 첫 곡 '거인'을 시작으로 타이틀곡 '멸망이라는 이름의 파도'와 이어지는 '캠프파이어'까지 변화무쌍한 음악의 흐름이 듣는 이를 사로잡는다. 전자양은 "후크송처럼 30초만 듣고 버리는 노래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30초마다 음악이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노래를 만들려고 했다"고 이번 앨범의 콘셉트를 설명했다. 조용조용 노래 불렀던 창법도 밴드 형식에 맞춰 달라졌다. "드럼 라인만 집중해서 들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리듬이 엄청 많다"는 것이 전자양이 꼽은 이번 앨범의 포인트다.

많은 변화를 반영했지만 그럼에도 전자양은 전자양이다. 한층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진 사운드 속에도 전자양만의 감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자양은 "힙합이나 펑키한 음악을 하고 싶어도 결국에는 내 취향이 나오는 것 같다"며 웃었다. 다음달 8일에는 홍대 앞 클럽 타에서 앨범 발매 기념 단독공연도 연다. 전자양 멤버들은 "일본 밴드 휘시만즈의 커버곡 메들리도 오랜만에 연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직 남아 있는 곡들도 조만간 두 장의 앨범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집을 낼 때는 허무주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미있는 것도 많잖아요. 2집부터 음악이 이미 밝아졌으니까요. 음악 외에는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멤버들을 모아 같이 음악을 하다 싸우는 것도 재미있고, 그렇게 음악이 바뀌어 가는 것도 재미있어요. 투닥투닥하면서도 팀을 하는 것, 그것이 더 발전한 형태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밴드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수지 판소리꾼 변신 '도리화가' 내달 개봉

조선 최초 여류소리꾼 실화
류승룡·송새벽과 호흡 맞춰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스크린 복귀작인 '도리화가'(감독 이종필)가 다음달 25일 개봉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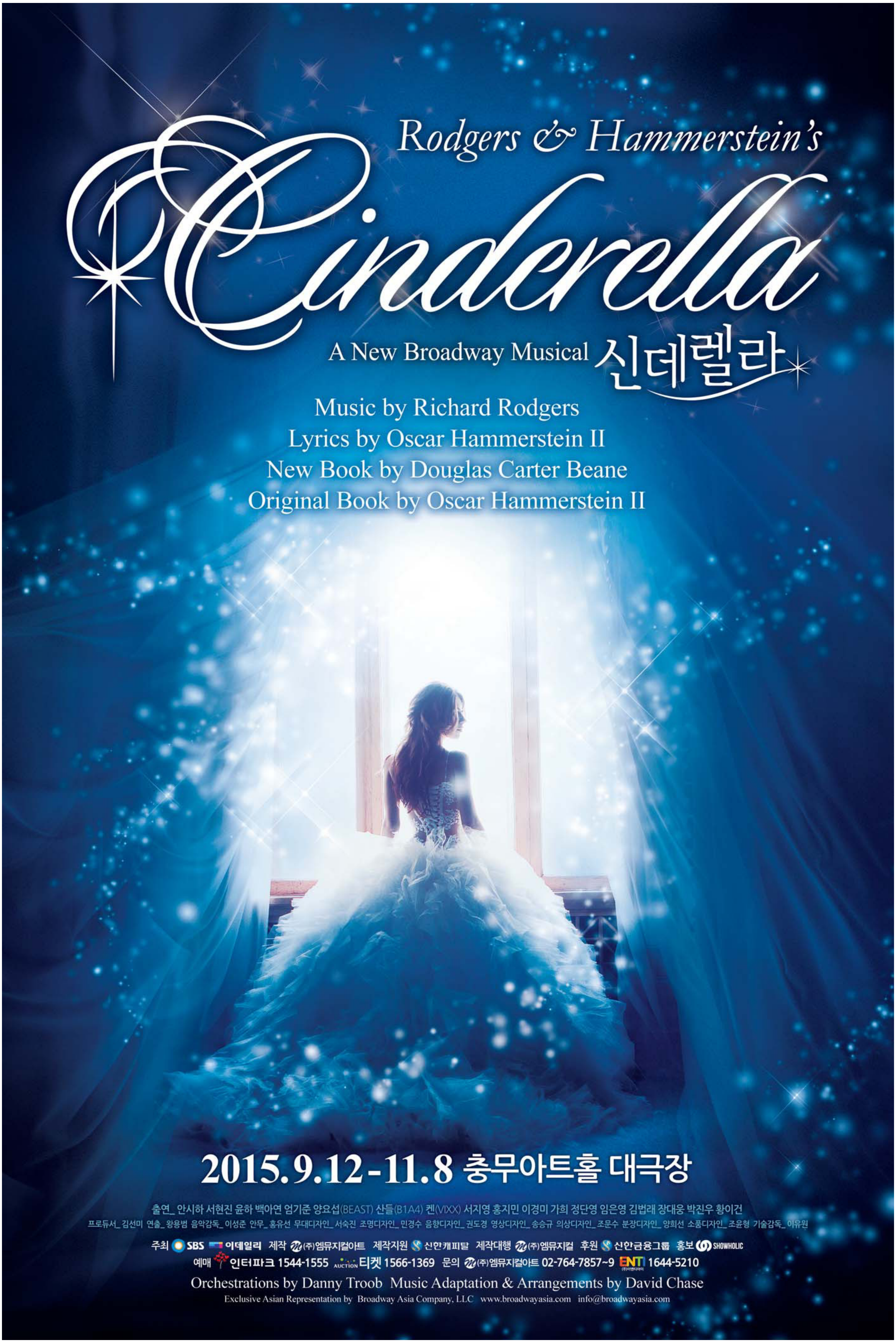
'도리화가'는 1867년 여자는 판소리를 할 수 없었던 시대, 운명을 거슬러 소리의 꿈을 꾸었던 조선 최초의 여류소리꾼 진채선(배수지)과 그녀를 키워낸 스승 신재효(류승룡)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수지는 당찬 소리꾼인 진채선 역으로 오랜만에 스크린을 찾는다. 남장부터 폭우 속 열연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류승룡, 송새벽 등 선배 배우들과도 호흡을 맞췄다. 류승룡은 판소리의 대가 신재효 역을 맡았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허균, '명량'의 구루지마에 이어 세 번째로 역사 속 실존 인물을 연기했다. 송새벽은 소리 선생 김세종 역으로 출연한다.

제작진은 전국을 누빈 로케이션을 통해 아름다운 영상과 흡인력 있는 스토리, 애틋한 판소리 선율을 스크린에 담았다. '전국노래자랑'의 이종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 기자 solanin@





Rodgers & Hammerstein's
Cinderella
A New Broadway Musical 신데렐라
Music by Richard Rodgers
Lyrics by Oscar Hammerstein II
New Book by Douglas Carter Beane
Original Book by Oscar Hammerstein II
2015.9.12-11.8 충무아트홀 대극장
출연_ 안시하 서현진 윤하 백아연 엄기준 양요섭(BEAST) 산들(B1A4) 켄(VIXX) 서지영 홍지민 이경미 가희 정단영 임은영 김법래 장대웅 박진우 황이건
프로듀서_ 김선미 연출_ 왕용범 음악감독_ 이성준 안무_ 홍유선 무대디자인_ 서숙진 조명디자인_ 민경수 음향디자인_ 권도경 영상디자인_ 송승규 의상디자인_ 조문수 분장디자인_ 양희선 소품디자인_ 조윤형 기술감독_ 이유원
주최 SBS 이데일리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신한캐피탈 제작대행 (주)엠뮤지컬 후원 신한금융그룹 홍보 SHOWHOLIC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Orchestrations by Danny Troob Music Adaptation & Arrangements by David Chase
Exclusive Asian Representation by Broadway Asia Company, LLC www.broadwayasia.com info@broadwayasia.com

명창 10인이 부르는 전국 팔도 '아리랑'

27일부터 한국의집서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이 '아리랑' 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지정을 기념한 아리랑 공연을 선보인다.

전통문화 복합체험공간 한국의집(관장 김갑도)에서 전국에서 전승되는 다양한 아리랑을 한 곳에 모아 10명의 명창이 공연하는 '월드뮤직, 아리랑'을 27일부터 11월15일까지 진행한다.

이춘희, 신영희, 정순임, 김광숙, 김길자, 유의호, 임정자, 이춘목, 유영란, 박재석 등 10명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상주아리랑, 해주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서울아리랑, 밀양아리랑, 서도아리랑,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등 지역마다의 특색과 고유정서를 담은 전국 팔도의 아리랑을 만날 수 있다.

한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긴 민요 아리랑은 역사와 예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노래로 지난 9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 창극의 맛 살린 '흥보가 박타령'

국립국악원 화제작 '작은 창극' 시리즈
내일부터 사흘간 풍류사랑방서 공연


국립국악원 작은 창극 '흥보가 박타령'.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의 전회 매진 화제작, '작은 창극' 시리즈가 '흥보가 박타령'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22~24일까지 풍류사랑방에서 공연된다.

작은 창극 '흥보가 박타령'은 전자 음향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풍류방 형태 소극장인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의 장점을 극대화한다. 기존 창극 레퍼토리를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자 시작된 국립국악원 '작은 창극' 시리즈의 일환이다.

국립국악원은 지난해 수궁가와 올해 흥보가에 이어 앞으로 남은 판소리 세 바탕(춘향가·심청가·적벽가)을 추가해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바탕 모두를 '작은 창극' 시리즈 무대로 선보여 레퍼토리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박타령'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흥보가'를 소재로 초창기 창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안숙선 명창을 중심으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소리꾼들과 함께 꾸미는 소박하면서도 알찬 무대로 채워질 예정이다.

연출은 그동안 정통·창작 오페라와 창극을 비롯해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작품 연출로 제4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연출상 등을 수상한 오페라 연출가 정갑균이 맡았다.

정 연출은 초창기 창극 무대에서 볼 수 있었던 '분창' 형식을 재현한다.

판소리 '흥보가'는 유쾌한 재미와 교훈적 주제로 오랜 세월 사랑을 받아 왔다. '박타령'과 '비단타령', '제비노정기' 등과 같은 눈대목들이 다채롭게 이어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다. 특히 재담과 잡가 대목이 풍성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판소리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공연은 오직 판소리 사설만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안숙선 명창과 민속악단의 유미리 수석이 극의 흐름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도창'역을 맡아 활약한다.

정 연출은 "기존 창극과 차별화된 내용과 형식으로 흥보가를 새로 해석해 보고 싶었다"며 "작은 창극 흥보가 '박타령'을 계기로 관객이 이 시대의 감수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창극의 내일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23일 오후 8시, 24일 오후 3시 공연. 전석 3만원. 예매는 국립국악원 누리집과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문의 (02)580-3300.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혜진을 둘러싼 신경전

◆ MBC '그녀는 예뻤다' 오후 10시



혜진(황정음)을 사이에 두고 성준(박서준)과 신혁(최시원) 사이의 신경전은 깊어만 간다. 성준과 신혁 둘 다 혜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어필하기 시작한다. 하리(고준희)는 "내일이면 다 돌아올 거야"라며 무언가를 다짐한다. 혜진은 성준이 좋아졌음을 고백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 KBS2 '장사의 신-객주 2015' 오후 10시

천봉삼(장혁)과 조성준(김명수)은 환전객주 김학준(김학철)에게 송파마방을 되찾기 위해 급히 강경으로 향한다. 그러던 중 복면을 한 의문의 사내들에게 습격을 당한다.



◆ tvN '할매네 로봇' 오후 11시

첫 방송되는 신개념 로봇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이희준·장동민·B1A4 바로는 로봇과 함께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떠난다.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0분

로이킴·신아영·조승연·김소정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그 뇌는 예뻤다' 특집이다. 네 사람은 남다른 어휘를 사용해 평범하지 않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풀어놓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11:40 세계인 스페셜 (재)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7:50 2015 FIFA U-17 월드컵 조별예선 2차전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15 님과 함께 시즌2 -최고의 사랑 (재) 11: 30 히든싱어 4 (재)	05:50 천기누설 스페셜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알토란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00 집밥 백선생 (재)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1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7:5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명단공개 (재)	05:30 스타 우리동네 장보고 (1회) 06:00 조선의 미식기행 (1회) 07:00 농업신화 (재) 07:30 명물인생 (재) 08:00 오감도 (재) 09:00 한국의 맛 시즌2 (재) 09: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0:00 스타 뉴스 11:00 집밥의 여왕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별별가족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96회 전국체육대회 15:55 오늘의 경제 16:05 이웃집 찰스 (재) 17:00 KBS 뉴스 5 17:20 특보-남북이산가족 상봉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7:00 비타민	12:00 MBC 정오뉴스 12:20 화려한 유혹 (재) 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 14:30 뚝?뚝!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 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0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50 현장토크쇼 TAXI (재) 14:0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50 두번째 스무살 (재) 17:10 두번째 스무살 (재)	12:30 Chopped Canada 13:30 당신을 주문합니다 (재) 14:30 한국의 맛 시즌2 (재) 15:30 오감도 16:30 명현지 셰프의 한정식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열정식당 (재)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사람과 사람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청년 대한민국 NCS 미래학교, 재능을 이끌다 2부작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라디오스타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30 유자식상팔자 22:50 연쇄쇼핑가족 24: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30 집밥 백선생 (재) 19: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할매네 로봇 24:20 비밀독서단 (재)	18:00 Gags 18:30 내 남자의 목공 19:00 당신을 주문합니다 (재) 19:30 식신로드 시즌2 (재) 20:30 BURGER FACTORY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2:00 Chopped Canada 23:00 당신을 주문합니다 (재)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21일(수)

승부는 다시 원점… 유희관–손민한 격돌

플레이오프 3차전

유, 준PO 부진 설욕 다짐
손, 불혹의 노장투혼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의 유희관. /연합뉴스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의 손민한. /연합뉴스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플레이오프 승부가 다시 원점이 됐다. 3차전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두산과 NC는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5전3승제)에 각각 유희관(두산)과 손민한(NC)을 선발로 등판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 마산구장에서 치른 1차전에서는 두산이 더스틴 니퍼트의 완봉역투로 7-0 승리를 거뒀다. 2차전에서는 NC가 재크 스튜어트의 완투승을 앞세워 2-1로 역전승해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유희관은 시속 130㎞대 직구의 칼날같은 제구가 주무기다. 상대 타자와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정규시즌에서는 18승 5패를 거뒀다. NC의 에릭 해커(19승 5패)에 이어 다승 2위에 오르며 두산 마운드의 주축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정규시즌 막판에는 부진에 빠졌다. 넥센 히어로즈와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두산 2-5 패)에서도 4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한 7안타를 얻어맞고 3실점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지난 17일 열린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유희관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동료가 고맙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명예회복을 벼른 이유다.

NC는 백전노장 손민한이 마운드에 오른다. 김경문 NC 감독은 19일 2차전 승리 후 손민한의 3차전 선발 등판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김 감독은 "손민한이 경력도 좋고 지금 감이 좋다"며 "단기전에서는 느낌이 좋은 선수가 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민한은 NC에서 중간 계투 임무를 맡다가 올해 선발로 복귀해 시즌을 시작했다. 불혹의 나이에도 26경기(19경기 선발)에서 11승 6패, 평균자책점 4.89를 기록했다.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다가 후반기 들어 선발과 구원을 오갔지만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2008년(12승 4패) 이후 7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챙겼다. 그는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둔 KBO 리그 역대 최고령 투수가 됐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박인비 빠진 LPGA, 리디아 고 1위 등극 기회

내일 타이완 챔피언십 출전
박인비는 KLPGA로 불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인자 도약에 나선다.

세계랭킹 2위 리디아 고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대만 타이베이의 미라마르 골프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푸본 LPGA 타이완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지난해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우승한 대회다. 하지만 박인비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 출전하기 위해 LPGA 투어를 잠시 비운다.



리디아 고. /연합뉴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5 시즌 정규대회를 5개 남겨 놓은 상황에서 박인비는 시즌 중반까지 세계 랭킹과 상금 랭킹, 올해의 선수 포인트 등 각 타이틀 부문에서 선두를 달렸다. 하지만 지난 18일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이 끝난 뒤 리디아 고는 박인비가 선두를 지키던 각 부문 순위에서 1위로 나서거나 동점을 이뤘다.

리디아 고는 20일 현재 상금과 시즌 평균 타수에서 1위, 올해의 선수상 부문에서는 243점으로 박인비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세계랭킹에서는 12.42점으로 1위 박인비(12.69점)를 근소한 차이로 쫓고 있다. 지난주 대회에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정교한 아이언샷과 영리한 코스 공략으로 나흘 내내 선두권에 머무르며 공동 4위에 올랐다. 지난 4개 대회에서 우승 두 차례를 포함, 톱10에 모두 진입하는 무서운 상승세다. /장병호 기자

토론토, 캔자스시티에 반격 시작

트로이 툴로위츠키 3점포
ALCS 역전 실마리 마련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캔자스시티 로열스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다.

토론토는 20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3차전에서 캔자스시티를 11-8로 제압했다. 이로써 토론토는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역전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토론토는 3-2로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3회말 구단 역대 포스트시즌 한 이닝 최다 득점인 6점을 뽑아 승부를 갈랐다.



정규시즌에 이어 포스트시즌에서도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트로이 툴로위츠키(사진)가 해결사로 나섰다. 안타와 볼넷으로 이어진 무사 1, 2루에서 타석에 선 툴로위츠키는 캔자스시티 선발 조니 쿠에토의 2구째 직구(약 150㎞)가 가운데 높게 제구되자 이를 통타해 중월 3점 홈런으로 연결했다.

토론토는 툴로위츠키의 이 한 방으로 점수 차를 4점으로 벌렸다. 기세를 이어가 볼넷에 이은 케빈 필라의 중월 2루타로 또 1점을 보태고 쿠에토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쿠에토는 3회말에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2이닝 8실점하고 무너졌다.

토론토는 바뀐 투수 크리스 메들렌을 상대로 조시 도널드슨이 2점 홈런을 쏘아 올려 스코어를 9-2로 만들고 승리를 예감했다. 5회초 2점을 내줬으나 공수교대 후 라이언 고인스가 자신의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을 솔로포로 장식하며 두자릿수 득점을 완성했다. /장병호 기자

신기록·다관왕… MVP 경쟁 치열

전국체전

수영 신기록 2개 임다솔
양궁 4관왕 노리는 기보배
육상 2관왕 김민지 등 거론

강원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후반에 접어들며 최우수선수(MVP)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전국체전 참가요강에 따르면 MVP는 남보다 두드러진 경기력을 발휘하고 다른 선수의 모범도 되는 출전자가 선정된다. 신기록을 세운 선수나 다관왕에 오른 선수 사이의 경쟁이다.

신기록을 세운 선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2개의 한국 신기록을 쓴 임다솔(17·계룡고)이다. 17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여자 고등부 배영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인 2분11초16으로 우승했다. 19일 배영 100m에서도 1분01초41로 한국 신기록을 써 신기록만으로 2관왕을 달성했다.

양궁 남자 일반부에서 세계기록을 깬 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법민(대전시체육회)과 신예 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도 MVP 레이스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19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여자 고등부 배영 100m 결승에서 우승한 임다솔(17·계룡고)이 금메달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 양궁의 에이스 기보배(광주시청)도 MVP 후보로 꼽힌다. 양궁 여자 일반부 60m와 70m에서 1위를 차지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30m와 50m에선 입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개인과 단체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다. 최대 4관왕까지 가능하다.

여자 100m와 200m에서 2관왕에 오른 한국 여자 단거리의 희망 김민지(제주도청)와 남자 100m와 200m에서 우승한 스프린터 김국영(광주시청)도 MVP 후보로 거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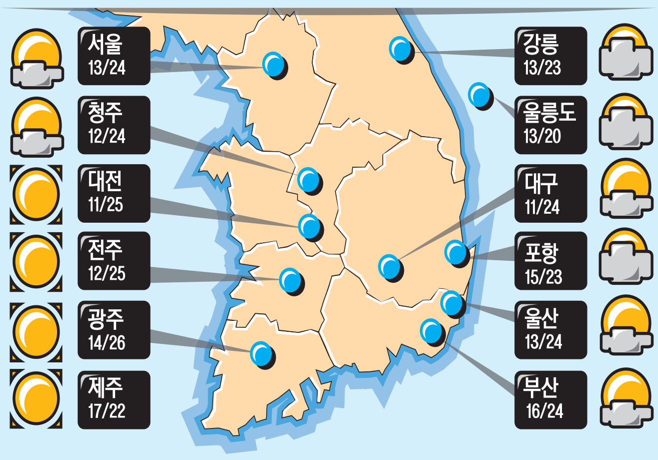
MVP 수상자는 체전 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되고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이 시상한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21 수 일출시각 06:45 일몰시각 17:4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8				4	1
5				4		8		7
		6		7	5		8	
3	1		6		4		7	9
	8		2	3		6		
6		4		9				2
9	7				1			
								5

7		9	5		8			
		4		9		8	2	
5			4				3	
			2				5	8
		1	7		5	3		
3	8				1			
	7				3			4
	5	6		7		9		
			8		4	5		2

스도쿠 정답

8	4	7	3	1	2	9	5	6
2	6	9	8	5	7	3	4	1
5	3	1	9	4	6	8	2	7
4	9	6	1	7	5	2	8	3
3	1	2	6	8	4	5	7	9
7	8	5	2	3	9	6	1	4
6	5	4	7	9	8	1	3	2
9	7	3	5	2	1	4	6	8
1	2	8	4	6	3	7	9	5

7	3	9	5	2	8	4	6	1
1	6	4	3	9	7	8	2	5
5	2	8	4	1	6	7	3	9
6	4	7	2	3	9	1	5	8
2	9	1	7	8	5	3	4	6
3	8	5	6	4	1	2	9	7
8	7	2	9	5	3	6	1	4
4	5	6	1	7	2	9	8	3
9	1	3	8	6	4	5	7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You must be hungry

A: You must be Dr. Leo Sandel?

B: Yes, I am. You must be Jinsoo Lee?

A: Welcome to Korea.
It's an honor to meet you.

B: Thanks for inviting us.

A: How was the flight? You must be tired.

B: Not too bad. I slept through it.

A: **You must be hungry**, then. Let's have lunc h first.

배고프시겠어요

A: 레오 샌델 박사님이시죠?

B: 네, 접니다. 이진수씨죠?

A: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B: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비행은 어떠셨어요? 피곤하시겠어요.

B: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내 잤어요.

A: **그럼 배고프시겠어요.** 먼저 점심 식사부터 하시죠.

문법Point

조동사 must는 '~해야만 한다'라는 강제의 의미뿐 아니라 회화체에서 '~임에 틀림 없다'라는 강한 확신의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씨죠?'라고 확신하며 말할 때도 You are~?라고 말하기보다 You must be~?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한 확신의 느낌으로 must를 사용할 때는 어떤 동작(동사)보다는 상태(형용사, 명사)에 관한 추측이 많기 때문에 주로 must be 형식으로 be동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Words

honor 영광
borrow 초대하다
flight 비행
sleep through ~동안 내내 자다

* It's an honor to meet you :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 격식을 차린 첫인사를 할 때는 honor라는 표현을 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비정규직 전전… 결혼 할 수 있을까요?
2017년 양띠와 연분… 기술을 익히세요

슈퍼파워 남자 78년 3월 24일 음력 4시27분

Q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사주풀이를 항상 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진로 운과 결혼 운을 조언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직장에 다니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는 한국 나이로 38세 남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곳도 원치 않는 직장이기에 매일 관둬야지 하면서도 먹고 살아야하기에 관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여자 친구도 없습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가야할지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제 팔자에 여자를 만나 결혼할 팔자는 있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A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신어조를 발표하는데 그 시대를 반영하여 유행되어 생겨난 말이 신어조입니다. 몇 년 전에는 '삼포세대(三抛世代)'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오포세대'로 바뀌더니 지금은 칠포(七抛)세대로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매, 꿈, 희망까지도 버린 세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심각한 시절에 귀하는 3月 계수(癸水)사주가 진월(辰月)에 태어났는데 여자가 전혀 없는 사주는 아니므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2017년에 양띠와 연분이 되고 이시기를 평소처럼 지나치면 40대 중반에도 혼자 지내게 되니 염두에 두십시오.

배우자 궁에 귀문 살이 작용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따지는 것이 많아 안 될 수도 있으니 낮은 자세로 낮춰서 뜻이 이뤄지도록 하고 여자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상담을 의뢰 하세요.

현재 비정규직으로 직장이 불안하겠지만 귀문 살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기술을 습득하면 늦게 배워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할 수 있으니 한탄하지 말고 주변에 기능직이 있는 곳을 찾아 기술을 배우십시오. 직장에서 일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오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에 탄력이 붙을 때까지는 비정규직이거나 돈이 많고 적고를 구별 말고 열심히 하여 장래에 창업이나 기능인을 염두에 두십시오.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희망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아직 젊고 일할 수 있는 육신이 멀쩡한 것이 기회이며 만나는 사람과 시간 약속을 잘 지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귀하의 은행통장에 예금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1일 (음 9월 9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무엇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60년생**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72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세요. **84년생** 연애를 할 때는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 — **49년생**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61년생** 욕망을 조금만 더 참으세요. **73년생** 이 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호랑이 — **50년생** 객지에서 친구를 만나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62년생** 원대한 소원이라도 쉽사리 성취됩니다. **74년생** 금전관계로 피곤합니다. **86년생** 너무나 좋은 기운이 귀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토끼 — **51년생** 늦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63년생** 새로운 인연자가 생겨 사랑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87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용 — **52년생** 지금 당장의 일만 신경쓰는게 좋습니다. **64년생** 소화기관쪽에 질병을 유의하세요.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88년생**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뱀 — **53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밀고 나가세요. **77년생**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9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 — **54년생** 여행운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습니다. **66년생** 많은 것을 보고 느끼세요.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90년생** 내짝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양 — **55년생** 자신을 믿고, 행동하세요. **67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입니다.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원숭이 — **56년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68년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될것입니다. **80년생** 행운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92년생** 변화와 이동수가 많아 바쁜 한 달을 보낼 것입니다.

닭 — **57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69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81년생** 금전운은 지출이 많으니 관리에 신경 쓰세요. **93년생** 친절한 전화 한통화가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것입니다.

개 — **58년생**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70년생** 너무 외로워 하지 마세요. **82년생** 언제나 처럼 주변에 활기를 넣어주세요. **94년생** 주변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하지 마세요.

돼지 — **59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71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83년생** 동쪽에서 새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금전운이 길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작별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시대다. 어릴적 놀이 중에 구슬치기, 딱지치기, 비석치기, 말타기 놀이가 있었다. 요즘 시골에 가봐도 이런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어딜 가든 스마트폰을 갖고 노는 모습이 대세다. 무리를 지어 돈을 내고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는 시대다.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놀이 문화가 바뀐 딴 세상이다.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께 직장인의 꿈은 '1억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저축성예금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당시 10.7%였다. 1억원을 은행에 맡기면 한 해에 1000만원 이상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삶에 지친 많은 직장인이 '1억 만들기'란 꿈을 꾸며 일했다.

최근 현실은 어떤가. 기준금리 1.50% 시대다. 사상 최저 금리다. 1억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치자. 한해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고작 150만원 안팎이다. 만약 퇴직후에 월 200만원의 이자수입을 만들려면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현금 16억원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 한달에 300만원을 쓰고 싶다면 24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엔 젊어서 돈을 모아 노후에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쏟는 이유다. 이젠 돈 있는 사람들도 익숙했던 것과 이별해야 하는 시대다. 발품을 팔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찾아 알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고, 유망하다는 땅을 보러 다녀야 한다. '지구가 소행성과의 충돌이 없다면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는 한 증권사 광고 처럼 '장수 리스크' 시대다.

저금리·저성장 덫에 갇힌 금융권도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있다. 평생 직장은 옛말이다. 낮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선 지난해에만 일자리 2만4000개가 사라졌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권업종에서만 전년 대비 4000명 가량이 짐을 쌌고, 생명보험사와 은행권에서도 각각 2000명 안팎이 회사를 떠났다. 평생을 다닐 거라 생각하며 입사했던 샐러리맨들이 익숙했던 상황과 이별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뿐 만이 아니다. 경제회복 지연과 저금리 지속으로 글로벌 은행의 감원 소식도 들린다. 독일의 도이체방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비상회의'를 통해 전체 직원의 25%인 2만3000명 감원을 목표로 세웠다는 소식이다. 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딧도 전체 인력 가운데 7%인 1만명 가량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그들도 예외 없이 익숙한 것과 이별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금융업계 현실도 익숙한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다. 마주한 새로운 현실과의 승부가 인생의 하반기를 가르고, 금융권의 미래를 결정할 게 자명하다. /파이낸스&마켓 부장

이산가족과 롯데그룹의 묘한 대조



기자 수첩

정 용 기 <유통부>

여든이 넘은 누나를 위해 갖가지 약을 구입하는 77세 동생의 이야기와 61세 동생에게 소송을 제기해 명예를 되찾으려는 62세 형의 이야기가 묘하게 오버랩되는 하루였다.

전자는 60여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산가족의 이야기이고 후자는 국내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 경영권을 두고 벌어지는 '형제의 난' 이야기다.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측에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을 다시 일으켰다. 이산가족들이 20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롯데가 형제는 서로를 향해 여전히 칼을 겨누고 있다.

남측 상봉단 389명은 이날 금강산호텔에 도착했다. 이들은 북에 있던 가족과 만나 잊을 수 없는 2박 3일을 보내게 된다. 이산가족과 롯데그룹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다르게 다가온다. 이산가족에게 가족이 그리움의 대상이라면 경영권 분쟁이 터진 롯데그룹에 '가족'이란 수식어는 오히려 독이 됐다. 두 형제는 소송까지 불사하며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까지 앞세워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94세의 고령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아직 정정하다고 주장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국내 5위 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롯데뿐만이 아니다. 이날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취재진 100여명이 몰렸다. 호텔투숙객을 비롯한 관광객도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수많은 취재인파로 호텔로비를 드나들던 한국인 고객을 비롯해 중국·일본인 등 관광객까지 불편을 겪었다.

롯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쟁의 피해가 롯데와 함께해온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길 바란다. 모쪼록 형제의 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한다.

社說

롯데 분쟁 중재할 재계원로 없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거칠어지고 있다. 한때 퇴장당한듯하던 신동주 SDJ 회장이 다시 나타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에 강력한 반격을 가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과의 대결이 격해지고 있다.

신동주 회장이 19일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외출한데 이어 신 총괄회장은 바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 측근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몰아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측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까지 끌어들여 강력한 '화력'까지 갖췄기에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측에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배치된 요원의 퇴거 요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신동주 회장측이 일방적으로 상주시킨 외부인이라는 것이 롯데그룹의 입장이다. 이들이 버티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렇듯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험악해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백주대로 난투극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자산규모 5위의 롯데그룹에서 전근대적 승계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아연할 따름이다. 봉건시대에 흔히 벌어지던 제왕승계 다툼이 칼과 창이 아니라 돈과 법의 외피를 띠고 재연되고 있다. 그렇지만 롯데가 단순히 신씨 집안만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기에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든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벌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과 반기업정서를 더욱 조장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뿐이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제3자가 중재하고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존경받는 재계원로가 나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재산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다툼을 빚은 적이 없는 재벌의 누군가가 나서면 되지 않을까 한다. 승계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카시트 의무 장착 기준 정비해야

소비자 119

"만 7세 이상은 카시트가 필요없다."

대다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국내 법을 적용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카시트 의무장착은 만6세 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카시트의 95% 이상이 7세(만 6세) 이하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에서 만 9세에서 만 12세까지를 카시트 의무 장착 대상으로 적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로교통법에서 만 6세를 카시트 의무 장착 연령으로 명시하면서 만 7세 이상의 아동용 카시트 장착률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무 장착연령인 만 6세이하의 카시트 장착률 역시 30%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법적인 규제가 없는 만 7세 이상의 카시트 보급률은 한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서부지역을 기준으로 6세~9세까지 아동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 후 탑승하도록 돼 있으며 위반 시 500 달러의 범칙금과 벌점 4점이 부과되는 등 아동용 카시트 장착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차량 사고 시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차량에 설치된 안전벨트는 오히려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만 7세 어린이의 평균 신장은 120㎝ 중후반으로 성인여성보다 40㎝, 성인 남성보다 50㎝이상 작다. 성인의 신장을 기준으로 한 안전벨트가 안전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안전벨트가 어깨와 쇄골을 지나도록 장착되지만 아이는 경우 손상과 직결될 수 있는 목을 거쳐 장착된다.

카시트 브랜드 브라이텍스에 따르면 아동용 카시트에 앉은 어린이는 차량 안전벨트만 착용한 아동보다 부상을 당할 확률이 59%, 사망에 이를 확률이 30% 낮아진다. 특히, 머리나 목, 어깨 등을 다칠 확률은 3.5배나 줄어든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더이상 미룰 필요가 있을까 한번쯤 고민해볼때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 사

◇서울메트로 ▷감사실장 장상덕 ▷기획전략처장 서정식 ▷경영관리처장 손채호 ▷영업처장 이권수 ▷차량처장 추돈호 ▷운전처장 홍순상 ▷시설처장 최순일 ▷근무환경연구소장 신선웅 ▷인재개발원장 민광만 ▷자재관리센터장 이도중 ▷시청서비스센터장 지종운 ▷충정로서비스센터장 조규주 ▷당산서비스센터장 김신윤 ▷신정차량사업소장 안상덕 ▷수서차량사업소장 박시영 ▷창동차량사업소장 조문수 ▷건축사업소장 박태식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수자원개발과장 우정훈 ▷도시광역교통과장 이윤상 ▷물류시설정보과장 손덕환 ▷광역도시도로과장 이우제 ▷도로운영과장 이성훈 ▷제주지방항공청장 박성진

◇기상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후과학국장 김성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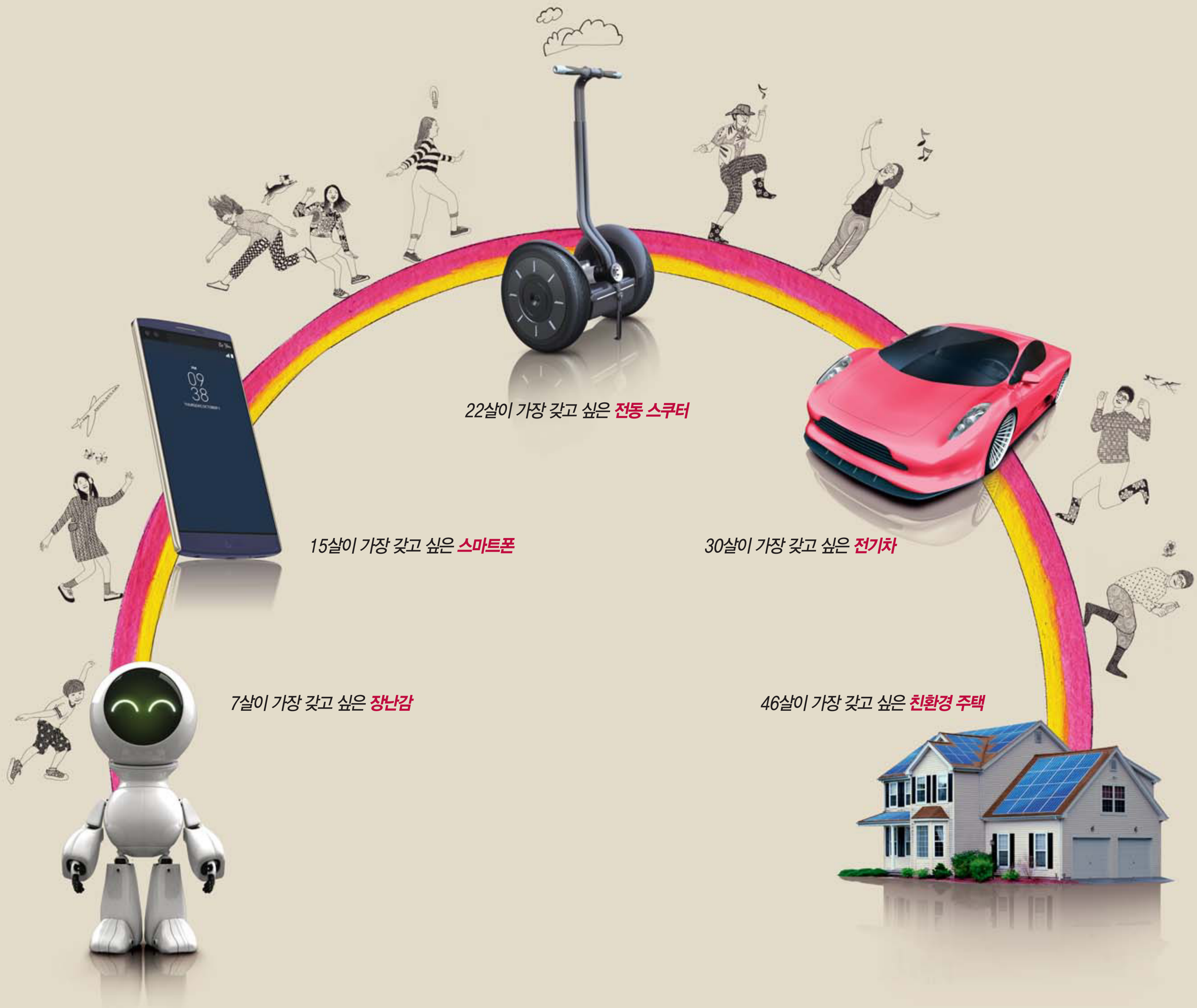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재정성과심의관 우병렬

◇통계청 △3급 승진 ▷사회통계기획과장 윤연옥 △과장급 전보 ▷대변인 손영태 ▷운영지원과장 임병권 ▷창조행정담당관 이호석 ▷국제협력담당관 성기도 ▷통계정책과장 정동명 ▷통계기준과장 차진숙 ▷통계조정과장 서운주 ▷통계심사과장 송재원 ▷통계데이터기획과장 안형준 ▷행정자료관리과장 문정철 ▷행정통계과장 강유경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진찬우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오삼규 ▷마이크로데이터과장 이재하 ▷경제총조사과장 김대호 ▷산업통계과장 윤명준 ▷산업동향과장 최정수 ▷서비스업동향과장 손은락 ▷물가동향과장 우영제 ▷인구동향과장 이지연 ▷복지통계과장 김보경 ▷표본과장 정구현 ▷교육기획과장 전백근 ▷조사연구실장 민경삼 ▷경인청 경제조사과장 조창희 ▷경인청 인천사무소장 최종록 ▷경인청 수원사무소장 서상록 ▷호남청 조사지원과장 송금영 △4급 승진 ▷국제협력담당관실 서경숙 ▷행정통계과 김태준 ▷경제통계기획과 정동욱 ▷물가동향과 김대유 ▷고용통계과 유상길 ▷조사기획과 최인범 ▷등록센서스과 윤미선 ▷표본과 이정현 ▷경인청 경제조사과 조경호 ▷충청청 조사지원과장 방태경

◇행정자치부 △과장급 전보 ▷지방세운영과장 조영진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송경주 ▷지방세입정보과장 김성기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진명기

SolutionPartner



당신이 꿈꾸는 것,
모두 화학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제품마다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은 차별화된 솔루션으로
당신의 앞선 인생과 함께합니다

LG화학